

Style

조선일보

DECEMBER
2019 vol.198

Tiffany.kr | ©2019 T&CO.



TIFFANY & CO.

Tiffany T

SUBLIMAGE LES EXTRAITS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크림 그 이상의 크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크림에는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을 담아낸 귀중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가 수블리마지 라인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녹아들어 피부에 매혹적인 감각을 선사하는 포물러는 피부를 밝혀주고 활력을 선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는 더 건강하고 탄력 있어지며, 윤기 있게 빛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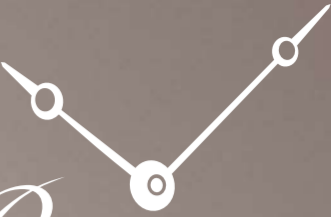


CHANEL



포토그래피: 머트 알라스(MERT ALAS) & 마커스 피곳(MARCUS PIGGOTT)

BURBERRY
LONDON ENGLAND


Breguet
Depuis 1775

Breguet La Marine
Marine Lady 9518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Perlée Collection
Bracelets, white gold
and diamonds.

HR
HELENA RUBINST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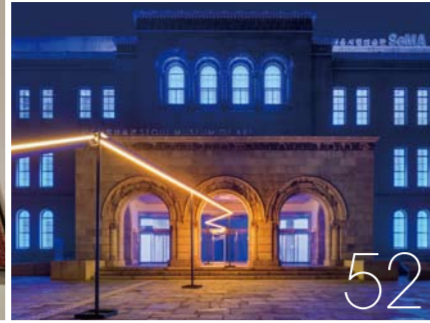
LA CLINIC
MONTREUX



NEW 리-플라스티 리커버리 나이트 크림
30% 프록실린* 단 하룻밤 만에 이뤄내는 매끄러운 도자기 피부

임팩트 기준

신세계 본점 신관 1층 (02)310-1596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WEST 1F (02)6905-3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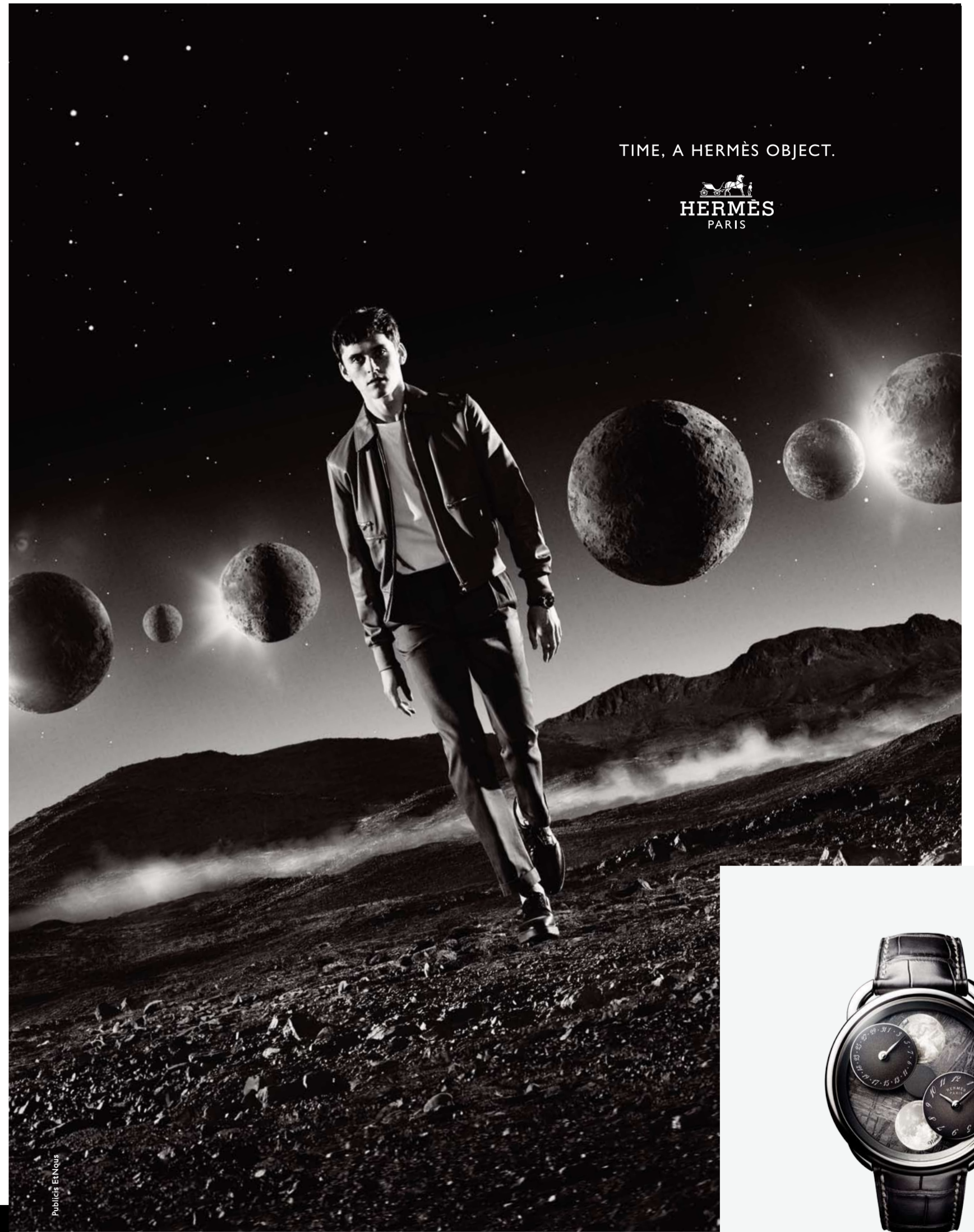


TIFFANY & CO.

언제나 옷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활짝 웃는 입 모양을 형상화한 스마일 펜던트 네크리스와 단아한 티파니 솔리스트 이어링, 그리고 서로 맞물린 알파벳 T가 그래픽적인 티파니 T 트루 링으로 풍성하고 세련된 주얼리 스타일링을 완성해준다. 문의 02-547-9488



- 20 '문화 예술 주도권'이 뭐길래, 아시아 도시들의 바쁜 행보 요 몇 년 새 아시아 문화권 문화 예술 콘텐츠가 불라일으킨 열기는 눈에 띄 정도로 뜨겁다.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의 문화 예술 콘텐츠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 22 WINTER GARDEN 플라워 모티브 하이 주얼리.
- 24 DAZZLING MOMENT 우아함을 한껏 배가해줄 주얼리 워치.
- 26 OIL RECIPES 다채로운 타입과 성분의 뷰티 오일을 엄선했다.
- 28 SNOW ESSENTIALS 패션 브랜드의 기능성 방한 아이템.
- 29 GIFT IDEA 진한 감동을 전해줄 연말연시 선물 리스트 107.
- 36 BORN TO BE GOLD 브랜드의 상징인 뱀 모티브를 한층 더 도시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사계, 세르펜티 세투토리.
- 37 LOVE YOURSELF 올 한 해 수고한 당신은 사철의 파인 주얼리를 선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 38 TIME TO WATCH 작고 얇은 틀 안에 예술과 기술, 그리고 브랜드의 역사와 감성까지 담고 있는 IWC 워치.
- 40 PARTY MUST GO ON MCM이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파티 룩에 화룡점정이 되어줄 잇백 3종을 출시했다.
- 42 NEW WOMAN 20세기 후반을 관통하는 다채로운 스타일의 현대적 인재해석.
- 50 FOR REFINED WOMAN 뉴욕을 대변하는 모던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조이그라이스의 오늘.
- 51 PRECIOUS FOR YOU 영디루사가 사랑하는 연인 혹은 한 해 동안 누구보다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로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제안한다.
- 52 MEN'S UNIVERSE IN SEOUL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에르메스 남성 컬렉션의 독창성, 문화, 에너지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열렸다.
- 54 ART OF SILK 에르메스 남성 실크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토프 고누(Christophe Goineau)와 나눈 인터뷰.
- 55 STAY BIG, STAY COOL 젠더리스 무드의 빅백.
- 56 FOR LUMINOUS SKIN 에스티 로더가 선보이는 리-뉴트리브 라인 신제품 두 가지.
- 57 ADVANCED CLEANSING 알심을 벗어나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클렌징 경험을 선사할 사철의 수블라미지 클렌징 컬렉션.
- 58 CALL ME BY MY NAME 향으로 기억되기보다는 하나의 페르소나로 기억되고 싶은 향수 셋.
- 59 A GLIMPSE OF CRAFTSMANSHIP (영인 정신, 그 열정의 조우)를 통해 듣는 라프라미안이 지닌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 60 ALL ABOUT CLEANSER 피부 상태와 기분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네 가지 타입의 클렌저.
- 61 EDITOR'S PICK 매력적인 홀리데이 에디션.



Arceau L'heure de la lune
Time flies to the moon

Style 조선일보

Issue.198 December 2019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Jewel TRANSFORMABLE PIECES

멀티웨어로 즐길 수 있어 더욱 탐나는주얼리 피스.

(왼쪽부터 차례대로) 오픈 타입 후프 또는 스트랩 스타일로 착용 가능한 포지션 후프 미디엄 아이링 1천1백90만원 **피어제**, 팬디의 입 부분에맞출리는 특별한 장식을 사용해 짧은 초크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는 밴드 더 까르페에 엘로 골드 롱 네크리스 3천7백만원 **까르페에**, 세련 보헤미안 네크리스의 트윈스트 체인에 달린 화이트 골드 핀과 밴드를 분리해 브로치로 연출 가능하다. 3천만원대 **부세론**, 헤드 부분을 다양한 소재의 원석 카보숑 또는 다이아몬드 플레이트로 교체해 색다른 변형할 수 있는 미디엄 사이즈 핑드 슈크르 인테리엔저벨 벨로우엔드, 핑드 슈크르 벨로우, 링, 네크리스에 호환할 수 있는 미디엄 사이즈 핑드 퀴즈 카보숑 1백20만원대 모두 **프래드**, 아코아 진주 또는 블랙 스파일 변형으로 라버시블하게 착용할 수 있는 리퍼드 라벨리온 아이링 1백90만원대 **타사키**, 에디터 **아베미**

Fashion FURRY & FLUFFY

포근하고 따뜻한 매력으로 무장한 시어링 백 3.

(우부터) 주름 효과를 낸 앙가주에 시어링 트림과 로고를 다룬 플립 백 5백70만원대 **사베르**, 다크 레아즈 컬러 시어링이 멋스러운 슬더백, 가죽 라이닝은 카프 스킨, 인장은 고트 스킨 스웨이드로 차려냈다.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인텔이 기법으로 블랙 & 브라운 스트라이프 시어링을 연출한 페이턴트 소재 바게트 백 2백95만원 **밴디**, 에디터 **아베미**



유니클 비주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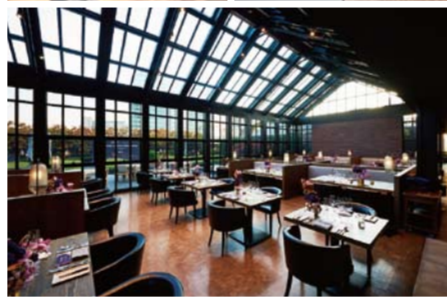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을 둘러싼 관심의 밀도가 높아지고 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수요를 내면히 충족시켜줄 만한 편집숍이 등장해 화제다. '리빙'에 대한 자식이 있다면 친숙할 수도 있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브랜드 '더 콘란샵(The Conran Shop)' 1호점이 11월 중순 서울 강남에 들어섰다. 영국 리빙업계의 제왕과도 같은 존재감을 자랑하는 테렌스 콘란(Terence Conran)이 1974년 설립한 브랜드로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명성을 떨쳐왔다. 콘란은 디자인, 식료품, 인테리어 등을 망라하는 인물로, 그 자신도 실력 있는 디자이너이자 사업가지만, 영국이 내세우는 창조적 인재 를 알아보는 뛰어난 안목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대부' 같은 존재로도 유명하다. 그 공로로 1983년 기사 작위를 받아 경(Sir)으로 불린다. 1983년 강남 한터역 인근에 약 3,300㎡(1천 평) 규모의 낙후한 1, 2층 공장에 자리 잡은 서울의 콘란샵은 세계적 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실용성 콘셉트를 지녔다는 1층에서는 밝은 분위기를 배경으로 러그, 쿠션, 식기 등 아가자기만 소품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 테렌스 콘란의 중간 이름을 차용한 카페 'Orby'도 1층에 들어서 있는데,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물론 인기 커피 브랜드 테일러 커피와의 협업으로 차별된 메뉴를 내세운다. 리운자립이 편 안한 감성의 2층은 다채로운 프리미엄 가구와 조명 브랜드들이는 호강을 절로 시켜주 는 공간. 카사나, 허먼 밀러, 글라스 이탈리아, 루이스 풀러, 비트라 등 국내에서도 이 미 팬층이 두꺼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2층 창가 옆으로 길게 늘어선 탁자 위에는 디자인과 문화에 관련된 서적도 갖추었다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팅 의 세련된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도 꽤 걸맞은 공간이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 해나갈지 기대된다. 홈페이지 www.conranshop.kr 에디터 **고성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Gastronomy 미술랭 3 스타 셰프 토마스 뷔너의 갈라 디너

요리를 예술이라고도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손으로 만드는 일상의 수공예품 으로 여는 이들도 있고, 궁극의 미각 체험을 선사하는 복합 예술이라고 칭송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 한 건, 예술가나 창조자로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춘 요리사가 소수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JW 메리어트 호텔과 웨비튼 호텔에서는 오감의 예술을 섬세하고도 화려하게 펼쳐내는, 극소수만이 자넷 을 법한 내공을 담은 갈라 디너 시리츠가 진행됐다. 독일에서 최초로 미술랭 3 스타 셰프 토마스 뷔너 (Thomas Bühner)를 초청해 그가 직접 구성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JW 메리어트 서울 의 민천 장소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다고 그릴(The Margaux Grill). 그에 앞 서 7층에 자리한 모보 바에서 운치 있는 가을 식상을 배경으로 카타일을 훌쩍거리면서 살짝 예열도 했 다. 분무대를 처음 장식한 주인공은 시프리를 넣어 만든 콘소메에 담긴 부드러운 참치 뱃살과 대구 요리. 오묘한 풍미는 물론 찰스 하이직 스펀의 경쾌 한 조화가 눈길을 절로 사로잡아준다. 그다음은 잔뜩을 곁들인 새우 바비큐와 티르타르, 그리고 청산향을 보태주는 리졸링 약인. 임페리얼 캐비아 를 곁들인 오징어와 아스파라거스의 앙상블은 시각적으로도 화려한 매력이다(패어링 짝꿍은 '플라니 몽트리쉬 화이트 와인'으로 미소를 절로 머금게 한다). 네 번째는 감자 에스푸마의 조화가 흥이로운 카리 향 훈파 아이스크림. 다섯 번째 코스는 출연한 난황을 곁들인 싱그러움 가을 버섯의 축제 메인 요리로는 잔뜩의 최고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베리류와 초콜릿을 입힌 과자 등으로 달콤쌉쌀한 매력을 단번에 선사하는 디저트 7코스의 여 정이 마무리되었다. 추후는 문화적인 속성을 지녔고, 경향에 의해 더 예민하게 단련되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다. 미식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즐기 려면 풍부한 경험을 쌓고, 배우야 한다. 갈라 디너의 매력은 그 경향의 밀도를 살짝 아찔할 정도로 확 끌어올려준다는 데 있지 않을까. 에디터 **고성현**



Exhibition (CLOUT : 에덴동산으로의 귀환전



클러센, 샌프란시스코 대학에도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2월 5일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리는 피에르 마리 브리송 개인전의 주제는 'clout(클라 우트)다. 'clout'은 영항,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으로, 패션업계와 소셜 네트워크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다. 브리송은 자연에 대한 예술적 영감의 영향력 을 표현하기 위해 도시의 신조어인 'CLOUT 시리츠'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초기에 고대 유적지 프레스코화의 신비하고 현혹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으 나, 최근 작품에서는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에 노출된 식물들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육지와 바다 사이를 여행하는 예술가로 환경문제, 특히 지 구온난화에 관련된 특별한 관찰자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서는 식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의 생명체같이 묘사했으며, 작품 속 동식 물과 곤충이 사멸을 초월한 시적 세계를 이루어 영감을 주고받는다. 아슈파에 매료된 피에르 마리 브리송은 풍성한 색채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나 타내며 정사각 캔버스에 자연을 담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환경의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관람객들을 초대 한다. 12월 5~15일 조선일보미술관, 문의 02-724-7832

피에르 마리 브리송(Pierre Marie Brisson)은 1955년 오를레앙에 서 태어난 프랑스 예술가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뉴욕과 샌프란시 스코에 있는 프랭클린 볼스 갤러리에서 2천여 점의 전시를 여는 등 미 국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미국 현지에서 매우 인지도가 있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작품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으며, 포드 로터데일 박물관, LA 페이치 박물관, 샌프란시 스 코 아헨바흐 재단(Achenbach Foundation for Graphic Arts) 같은 북미의 수많은 기관과 프랑스의 까르페에 그룹, 일본의 낫산 컬렉션, 샌프란시스코 대학에도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2월 5일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리는 피에르 마리 브리송 개인전의 주제는 'clout(클라 우트)다. 'clout'은 영항,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으로, 패션업계와 소셜 네트워크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다. 브리송은 자연에 대한 예술적 영감의 영향력 을 표현하기 위해 도시의 신조어인 'CLOUT 시리츠'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초기에 고대 유적지 프레스코화의 신비하고 현혹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으 나, 최근 작품에서는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에 노출된 식물들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육지와 바다 사이를 여행하는 예술가로 환경문제, 특히 지 구온난화에 관련된 특별한 관찰자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서는 식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의 생명체같이 묘사했으며, 작품 속 동식 물과 곤충이 사멸을 초월한 시적 세계를 이루어 영감을 주고받는다. 아슈파에 매료된 피에르 마리 브리송은 풍성한 색채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나 타내며 정사각 캔버스에 자연을 담았다.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환경의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관람객들을 초대 한다. 12월 5~15일 조선일보미술관, 문의 02-724-7832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Dazzling Rendez-Vous Moon. Manufacture movement 925B/1.

에제 르클트르 부티크

갤러리아 EAST - 롯데 에비뉴엘 - 롯데 월드타워 - 현대 본점 - 현대 무역센터 - 현대 판교 - 신세계 대구



for him
Selection

화려한 패션 아이템과 향긋한 술, 그리고 캔들까지.
홀리데이 무드를 한껏 고조시켜줄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song sang sub

달콤한 심플함이
보스 영 가터 마당
가벼워.
GIVENCHY

마이센과 합성해 완성한 클래식 백,
30.5x21cm, 53만원 보스 맨,
BOSS
METISSA

12시 방향에
늘짜침을, 6시 방향에
플라밍고나 투르바움을
장착한 대만시 투르바움
레트로그래드 크로노그래프 워치
19만2천2백20만원 IWC.

BOSS
LAURENT
30.5x21cm, 53만원 보스 맨,
BOSS
METISSA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요닉스, 블랙 오피스를
세팅한 밴드 카터피에
카르스 링크 4.3천만원에
가벼워.
실크 브라이
32만원 볼 포드

카르스 링크 4.3천만원에
가벼워.
실크 브라이
32만원 볼 포드

레드 크리스탈로 장식한 브로치 가터 마당
둘레 11cm 가버나.

월드 라제르 포인트를 준 울 블렌드 재킷
4백만원대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골드 시어스 장식 로퍼
1백80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참장식으로도 활용 가능한
소각용 케이스, 6x6, 5cm,
75만원 삼선통에 따라가요.

한정으로 선보이는
돔 페리뇽 X 레니
크리비츠 에디션, 750ml,
30만원대 돔페리뇽.

수직선으로, 광택을 입혀 각 파츠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닌 마이센과 합성해 완성한 클래식 백,
30.5x21cm, 53만원 보스 맨,
BOSS
METISSA

일루미늄 선글라스
70만원 보타가
베네타.
레드 컬러 아이
보트는 캔들 2개
세트 69만원
바카라.

토코 송이 가죽,
폴리드 1923,
카멜리 드레코,
카멜리 백, 40x30cm,
1만8천만원대 에르메스.

마블 프린트 실크 셔츠 1백25만원 벨루티.

자랑시 02-546-2790 가터마당 1566-7277 폴 스미스 02-6905-3456 보스 맨 02-515-4088 브리오나 02-6905-3760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볼 포드 02-6905-3534 벨루티 02-547-1895 둘레 엔 가버나 02-2092-6643
삼선통 페리뇽 02-3430-7854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돔페리뇽 02-2188-5100 몽블랑 1670-4810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바카라 02-3448-3778 에르메스 02-542-6622 IWC 02-3440-5876

스페리오는 유한영
아사미는 이대영
에디터 이주이



GENIUS IS BORN CRAZY

스워로브스키의 화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다양한 액세서리 컬렉션. 눈부신 글리터와 보석 장식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그리저이 에펠과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조각으로 완성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레이디 아멜 품 데 지모르 주워치 1억5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진여인 오렌지 블로섬, 비닐리와 안베 향이 조화로운 글래시 카비레 EDP. 100ml, 15만9천원 장클로드 by 사이오인타비서셀.

페티트스피어 에펠링 푸르샤페르 클라 카미 플로르스, 925인덴티싱 로랑 by 인타니 바카렐로.

아방티에르 에펠링 장클로드 by 인타니 바카렐로. 425인덴티싱 로랑 by 인타니 바카렐로.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제작한 메탈릭 피우치, 40X18cm, 3백17만5천원 보타가 베네타.

블랙 코르셋이 디테일 7백에 실버 컬러를 적용한 샤넬 5000에르 스타디스트 코르셋 피우치, 68x15cm, 5백만원대 로랑.

블루 크리스탈을 더한 링 27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블랙 크리스탈과 진주 장식이 어우러진 이어링 71만원 디올.

샤넬 5000에르 에펠링 에펠링 이어링 9백10만원 디올.

송이 자각죽으로 고급스러운 면모를 살린 샌들 1백30만원 자방시.

사일로 시몬 장바 신발 151만원 쿠레.

매탈릭 네가죽 통굽 신발 271만원 자방시.

퍼플 시폰이 화려한 미니 바게트 백, 19X11.5cm, 3백45만원 펜디.

차르비트 코르셋은 핑크의 컬러를 표현한 핑크 코르셋이 9월 25일부터 출시됩니다.

레오나드 02-3449-5163
 샤넬 080-200-2700
 불가리 02-2056-0172
 루스타카 02-501-4436
 스와로브스키 1661-9060
 디올 02-3490-0104
 자방시 02-546-2790
 구찌 1577-1921
 보타가 베네타 02-3438-7882
 사이오인타비서셀 080-363-5454
 생 로랑 by 인타니 바카렐로 02-549-5741
 자란비토 로시 02-6905-3690
 펜디 02-2056-9023
 카르비에 1566-7277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02-546-6090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백길호랑이 무늬를 모티브로 한 시폰 원피스 59만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for her Selection

눈부신 글리터 아이템과 보석 장식... 연말 파티 현장에서 돋보이게 해줄 매력적인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song sang sub*



SWAROVSKI

#SparkDelight

Naughty or Nice, something special is coming your way





‘문화예술 주도권’이 뭐길래, 아시아 도시들의 바쁜 행보

요즘 ‘아트 파퓰’의 시계추는 둘째가라면 서럽다 할 만큼 바빠 돌아간다. 한 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섭렵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지만, 시야를 국경 너머로 확대하면 그야말로 다이어리에 빈 칸이 별로 없는 스케줄을 소화하게 될 것이다. 미술계 ‘장터’라고 할 수 있는 ‘아트 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시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축제인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등 각종 콘텐츠가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 몇 년 새 아시아 문화권 문화 예술 콘텐츠가 불릴 일으킨 열기는 눈에 띄는 정도로 뜨겁다. ‘도시의 세기’로 불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나 지역의 이름을 붙인 글로벌 행사가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뜨고 지고 있다. 최근 상황만 보더라도 갈수록 무게감을 더해가는 상하이의 아트 페어 주간이 이어 11월 말 싱가포르에서 비엔날레가 시작됐고, 오는 1월에는 타이베이에서 아트 페어가 열린다.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의 문화 예술 콘텐츠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해외에서 엄청난 규모의 미술관을 짓는다든지 경제 시장의 기록이 수백억원대를 넘어선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많은 이들이 의아해한다. 대중의 일상에서 동떨어진 듯 느껴지는 현대 미술이 도대체 왜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는지, 그저 ‘고급 예술’의 논리이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기에는 미술 생태계를 둘러싼 시장 논리가 꽤 크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니, 단순하게 산업적 관점에서 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스페인 북부 도시 빌바오와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가 전문기를 사이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최근 루이 비통 매장으로 한국에 자취를 남긴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명작으로 유명한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1997년 완공)은 해마다 1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꾸준히 끌어모으고 있고, 지난 2013년 모습을 드러낸 마르세유의 뮈셈(MuCEM, 자중해문명박물관) 역시 개관 이래 연간 평균 1백25만 명을 웃도는 관람객을 맞이해왔다. 건물 하나가 도시를 살렸다는 얘기를 들을 법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각처의 문화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로마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다. 하지만 근대의 산업화를 거쳐 20세기에 도시화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보편화 양상을 띠면서 물리적인 구조를 재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이 부각됐다. 특히 문화 예술이 도시 재생에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했고, 탈산업화를 거친 도시들이 겪은 문화 주도의 회생 사례가 주목받았다. ‘소프트 파워’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은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무게감이 훨씬 더 커졌다. 문화 예술은 단순한 도시 마케팅 수단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묶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다 유기적인 차원에서 추구되는 ‘강조 도시’의 핵심 자원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배경에서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동력을 지닌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크리에이티브 허브’를 향해 저마다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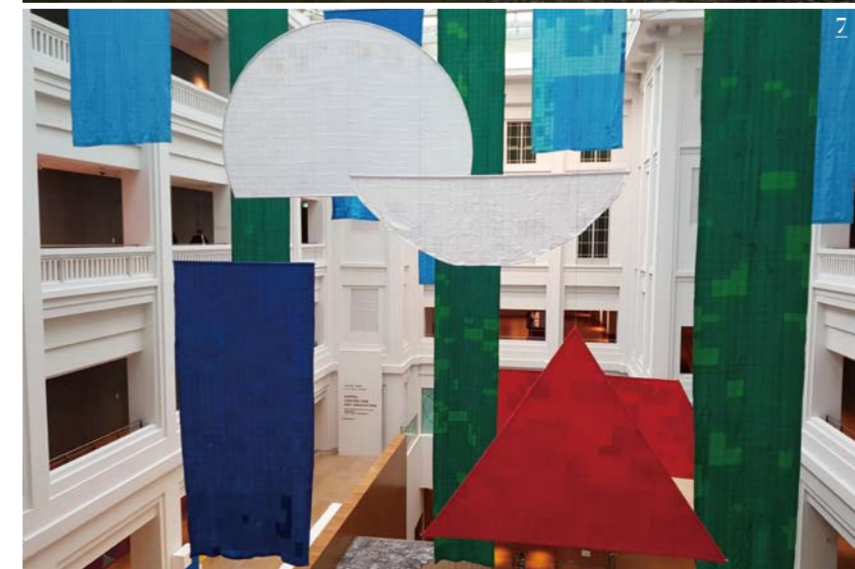
회복한 위용과 기개로 홍콩에 도전장을 던진 상하이의 ‘아트 피어’

요즘 문화 예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중 하나는 단연 상하이. 작금의 상하이를 보면 ‘20세기가 ‘초대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세기’라는 문구가 절로 떠오른다. 중국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아트 도시’ 타이틀까지 넘보는 야심을 드러내는 면모를 보려면 ‘잘나가는’ 도시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를 수 있는지 새삼 놀란다. 지난해 하반기

‘블루버스터급’ 콘텐츠로 성공적인 비엔날레를 치러내며 베이징보다 강력한 홍콩의 대항마로 부각된 상하이. 여기에는 황푸강 서쪽 11km에 이르는 웨스트 번드의 공장 지대를 문화로 재생한다는 도시계획에 힘입어 ‘문화 예술 특구’로 거듭난 쉬후이(Xuhui) 자구의 조성이 큰 몫을 차지한다. 올해도 11월 초 상하이 아트 페어 주간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발길을 동시에 이끌었는데, 웨스트 번드 아트 앤드 디자인 페어와 아트O21이 열리는 동시에 대다수 미술관과 갤러리가 눈길을 끌 만한 전시를 내놓기 때문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웨스트 번드 아트 앤드 디자인 페어는 이미 가고시안, 페이스, 화이트 큐브, 하우스 앤드 위스 등 1백 개가 넘는 세계적인 갤러리를 한데 모이게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에서도 국제갤러리, 아라리오갤러리, 조현화랑 등이 부스를 차렸다. 아트O21은 보다 대중적이고 다양한 동시대 미술을 주로 만나볼 수 있는 위성 페어인데, ‘초청’을 받아야 하는 웨스트 번드 페어와 ‘참여’ 신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아트O21에 동시 참가하는 갤러리도 꽤 있다. 올해는 작년과 비해서는 눈에 띄는 대형 콘텐츠가 덜했지만, 전반적으로 매개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술관이나 아트 공간이 선보인 전시의 다양한 매력은 여전했다. 최고의 화두는 그동안 금금증을 유발하던 ‘퐁피두 상하이’의 전격 등장이었다. 정확하계는 ‘센터 퐁피두 X 웨스트 번드 뮤지엄 프로젝트(Centre Pompidou X West Bund Museum Project)’라는 명칭인데,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퐁피두가 유럽 밖에서 처음 분관을 연 사례다. ‘동서양을 잇는 미술 외교’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5년에 걸쳐 소장품 전시와 기획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한 웨스트 번드의 새 미술관 건물(25,000m²)에서는 현재 개막전으로 19세기 말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아우르는 첫 소장품 전시인 <The Shape of Time>이 열리고 있다. 이미 롱 뮤지엄, 유즈 뮤지엄, 탱크 등 내로라하는 문화 예술 공간이 들어선 웨스트 번드를 비롯해 록비드, 하우스 오브 뮤지엄, 포션 파우어이션 등 훌륭한 공간을 다수 거느린 상하이가 결국 ‘아시아의 뉴욕’, 적어도 ‘동양의 파리’가 되지 않겠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세금이나 검열 등이 이슈로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30%를 훌쩍 넘겼던 세금이 그나마 올해 14%대로 낮아졌고, 막강한 경제 엔진이 가동되는 도시답게 큰 컬렉터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덕에 시장 잠재력이 워낙 크기에 미래 전망은 낙관적이다. 명실공히 아시아의 아트 허브로 자리 잡은 홍콩의 위상이 쉽사리 흔들릴 리는 없다면서도,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상하이 아트 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진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상하이는 문화적 자산이 부재했던 도시가 아니다. 19세기 중반에 개항을 겪은 항구도시라는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면, 오랜 세월 가려져 있던 ‘모던 상하이’ 특유의 복합적인 매력은 현재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빛을 발할 듯하다.

새로운 미술가집으로 비엔날레에 임하는 싱가포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상하이와 타이베이에서 비엔날레가 열렸고, 올해는 싱가포르의 해다. 개황 2백 주년을 맞이해 더 의미가 깊기도 한 2019 싱가포르 비엔날레(SB 2019)의 주제는 ‘Every Step in the Right Direction’.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끄는 변화를 향한 인류의 노력 속에서 여러 상황과 단계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본다. 필리핀의 저명한 기획자 패트리 D. 플로레스(Patrick D. Flores)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비엔날레는 지난 11월 22일 개막해 내년 3월 22일까지 4개월간의 대장정을 펼친다. 어포터블 아트 페어(Affordable Art Fair)도 11월 말에 함께 열렸다. 상하이, 홍콩, 베이징



을 거느린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3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지만, 동남아시아 아트 생태계에서 화교 자본을 등에 업은 싱가포르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마리나 베이 샌즈(MBS)나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Singapore) 같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출중한 플랫폼과 언어 등이 뒷받침되는 인프라는 큰 장점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속살을 겪기도 했다. 올 초 싱가포르 아트 주간을 열흘가량 앞두고 아트 페어인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가 급작스레 취소된 일로 받은 상처가 컸다.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는 스위스 출신의 거물 기획자 루돌프 로렌조(Rodolf Lorenzo)가 2011년 만든 아트 페어로, 싱가포르는 물론 동남아시아 미술계의 주요 행사였지만, 해마다 참가하는 갤러리 숫자가 줄더니 기어이 사라지고 말았다(그가 자카르타에 동일한 ‘아트 스테이지 브렌드’로 2016년에 설립한 아트 페어 역시 두 차례만 개최되고 막을 내렸다). 부스 임대료 등 값비싼 싱가포르의 인프라에 비해 지역 아티스트의 시장 가격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어떤 만큼 성숙해지려는’ 노력이 분주하게 펼쳐지고 있다. 올해 비엔날레를 계기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동남아 근현대미술에 초점을 둔 아트 페어 ‘S. E. A 포커스’의 2회 행사를 여는데, 지역 내 11개 국가에서 20개 정도 갤러리가 참가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국제 아트 페어인 ‘아트 SG(Art SG)’가 개최된다. 정부 차원의 후원을 얻은 아트 페어는 첫째 행사에서 전 세계 80개 갤러리를 끌어들이며 지역 미술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를 계기로 아트 스테이지의 아픔을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만의 자존심 타이베이, 우리도 뒤질 수 없다

아트 SG 공동 창립자 중에는 특기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트 바젤 홍콩 초창기 멤버로 올 초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 台北當當) 아트 페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연 영국인 문화 사업가 매그너스 렌프루(Magnus Renfrew)다. 홍콩 등 아시아 문화권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는 내후년인 2021년에는 서울에서도 국제 아트 페어를 열어 한국 진출을 꾀할 것이라는 소문이 미술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시아 도처에 새로운 플랫폼이 뜨고지면서 ‘아트 페어의 범람’이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법. 아시아 지역에서 ‘현대미술을 비롯한 문화 예술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기에 도시와 시장, 그리고 콘텐츠가 잘 어우러지면 성공과 성장의 가능성은 어디든 도시라고 있는 법이다. 더욱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컬렉터를 만나길 원하는 갤러리, 참신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보길 원하는 컬렉터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것 자체가 나쁠 건 없다. 타이베이 당다이 페어는 올 초 리면 며칠, 화이트 큐브, 데이비드 즈위너 등 명성 높은 유수 갤러리를 포함해 90개 갤러리가 참가한 첫 행사에서 2만8천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대작’의 등장으로 눈에 띄게 화려한 매출을 자랑하지는 않았어도 첫해치고는 괜찮았다는 평가다. 상하이 아트 주간이 있는 11월과 아트 바젤 홍콩이 열리는 3월 사이에 개최해 전략적으로 시기를 잘 택했다는 평가도 있다. 내년 1월 중순 열리는 2회 행사에는 97개 갤러리가 모일 예정인데, 올해에 이어 국제 갤러리, 조현화랑, 아라리오갤러리 등 한국 갤러리도 합류한다.

도시 기획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들이 멀쩡잡지 않사나가는 현상을 두고 ‘승자독식 도시화’라는 표현을 썼다. 도시의 불평등은 안타까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일부 도시만 승승장구하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결국 ‘문화 예술 도시’, ‘크리에이티브 허브’를 향한 아시아 여러 도시의 운명도 비슷하게 흘러갈지 모른다. 서울이나 광주, 부산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국내 최대 미술 장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가 올해를 역대 최대 판매액과 관람객을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 혹은 아시아 차원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도시의 각종 인프라가 진화하고 있는지, 지역 커뮤니티의 수요와 참여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모로 곱씹어볼 구석이 많다. 글 **고성현**



1 최근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장터’ 상하이의 개관전으로 선보인 소장품 ‘타임의 형태’ 전시(The Shape of Time). 동서양을 잇는 미술 외교의 공식 명칭은 ‘센터 퐁피두 X 웨스트 번드 뮤지엄 프로젝트(Centre Pompidou x West Bund Museum Project)’.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West Bund Museum 2 상하이의 하오 아트 뮤지엄(HOW Art Museum)에서 지난 6월 말에서 11월 24일까지 진행된 미국 아티스트 다니얼 아쉬(Daniel Arsham) 전시 풍경. 전시 명은 ‘퍼페추얼 프레젠테이션’. Photo by SY Ko 3 상하이의 고학물 전시 공간으로 쓰고 있는 프라다 통치(Prada Rong Zhai)의 (Rear Windows) 전시 풍경. Photo by Zhu Hai. Courtesy Prada 4 지난 11월 7~10일 열린 웨스트 번드 아트 앤드 디자인 페어에 참가한 조현화랑의 부스 풍경. 김중학, 이베, 강장훈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5 인도네시아 최고 부디 데이 웨스트 번드에 설립한 유즈 뮤지엄. Photo by SY Ko 6 올해 싱가포르 비엔날레에 출품한 김보디 작가의 ‘리타나-리타나(Vandy Pattana)의 영성 작품 Funeral’. Courtesy the artist 이미지 제공: SB 2019 7 싱가포르 비엔날레의 무대 중 하나인 내셔널 갤러리 상투르의 전시 공간. Photo by SY Lee 8 지난 1월 타이베이 당다이(Taipei Dangdai) 아트 페어 첫해가 열린 타이베이 난강의 전시 센터에서 한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Courtesy Taipei Dangdai 9 올 초 타이베이 당다이 아트 페어에 소개된 양해규 작가의 2018년 작품 ‘The Intermediate - Frosty Walking Compartmented Container’. Photo by 안현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타파니 플라워 다이아몬드 & 탄자 나이트 플라워 링** 바람에 흩날리는 종이 꽃을 원으로 고정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최소가치 높은 쿠션 컷 블루 탄자 나이트 원석이 신비로운 무드를 더한다. 9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불가리 피오레 브레이슬릿 이탈리아어로 꽃을 의미하는 피오레 (fiore)와 영어 단어 포에버(orever)를 결합한 피오레비 강렬한. 로마 주얼러로서의 정제성을 상징하는 4개의 꽃잎을 모던한 라인으로 재해석했다.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4천3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피아제 로즈 브로치 청원자 이브 피아제가 사랑한 정미를 주얼리로 표현했다. 섬세한 오픈워크 기법으로 구현한 보드에 총 1.2캐럿에 달하는 1백4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8백만원대, 문의 02-540-2297

피아제 로즈 네크리스 짐기 줄기를 따라 피어난 일사구개지 형상화한 시실적인 디자인이 아름답다. 총 6.28캐럿에 달하는 1백9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바람에 적은 일사구개가 흔들리듯 반짝이는 빛이 일렁인다. 5천만원대, 문의 02-540-2297

반클리프 아펠 컷아웃 로터스 브레이슬릿 아름다움, 순수함, 용인함을 상징하는 연꽃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정교하게 세공한 화이트

골드 펜던트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움직임에 따라 눈부신 빛을 발한다. 6백만원대, 문의 00798-852-16123

부쉐르 리에르 드 파리 스티드 이어링 1858년 팔레 루아얌 아카데미에 첫 부티크를 연 프레데릭 부쉐르가 부티크의 정문을 감싼 야생 담쟁이덩굴에서 영감을 얻어 고안한 리에르 드 파리 컬렉션의 스티드 이어링. 화이트 골드 보드에 총 9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772-3508

사벨 화인 주얼리 까멜리아 프레스유 링 가브리엘 사벨이 사랑한 까멜리아 꽃은 쿠투르와 주얼리 하우스에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다. 오픈 타입 링 일쪽을 까멜리아 꽃송이와 일사구개 모티브로 장식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만원대, 문의 080-200-2700

타사키 기랜드 네크리스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꽃잎 모티브가 최상급 아교아 진주를 감싼 형태의 화이트 골드 펜던트가 눈길을 끈다. 네크리스 부분 역시 우아한 빛을 머금은 아교아 진주를 세팅했다. 1천8백20만원대, 문의 02-3461-5558

그라프 카린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그리스어로 카린사는 '사랑 받는'을 의미한다. 델라어 그라프 에스타티트에서 자라는 하얀 카린사 꽃 수심 송이가 연결된 형태의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30 에디터 **이혜미**

winter Garden

한겨울에도 활짝 피는 꽃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플라워 모티브 하이 주얼리가 빛어낸 눈부신 겨울 풍경.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시진호 조소미

Tod's Korea Inc. 02. 3448. 8201



TOD'S
MADE IN ITALY

TODS.COM

dazzling Moment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 우아함을 한껏 배가해줄 주얼리 위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부터 차례대로) 벨가리 세르펜티 세두토리 벨 머리를 연상시키는 물방울 모양 케이스와 뱀 비늘 모티브의 육각형 링크가 이어진 브레이슬릿 워치.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벨 머리 모티브 다이얼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배젤, 케이스, 브레이슬릿에 피베 세팅해 극강의 화려함을 자랑한다. 1억 2천만원대. 문의 02-2056-0171 IWC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문페이스 37 12시 방향에 문페이스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제품. 클래식 디자인의 메시 브레이슬릿이 손목을 부드럽게 감싼다. 새틴 처리한 배젤에 66개의 다이아몬드, 다이얼에 12개의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우아함을 더했다. 4천7백90만원. 문의 02-3440-5876 로저드뷔 벨벳 주얼리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새틴 샌버스트 다이얼의 6시와 12시 방향에 각각 핑크 골드 로만 인덱스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브레이슬릿 수직 방향을 따라 2백6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것이 특징이다. 5천3백만원. 문의 02-2118-6026 플랑랑 빌라레 우먼 울트라 슬립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듯 8.7mm 초박형 워치다.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연한 브레이슬릿으로 여성스러운 매력을 강조한 제품. 3천3백만원대. 문의 02-6905-3367 오메가 칸스텔레이션 맨해튼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자계 다이얼 위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화려하게 빛난다. 6시 방향에 날짜창을 장착했으며 특유의 모노 랭 브레이슬릿이 특징.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한 백 케이스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3천만원대. 문의 02-511-5797 까르띠에 링크 아메리칸 주얼리 워치 직사각형 다이얼과 앙커히로 새긴 스네이크 체인 브레이슬릿이 조화롭다. 배젤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다. 3천9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에디터 이주이



당신이 다이아몬드입니다
DIAMOND IS *You*

Golden dew



Oil. recipes

건조한 대기와
칼바람으로 피부가 극도로
메마르고 푸석해지는 계절. 크림만으로
건조함을 이겨내기 어렵다면 오일이
답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촉촉하게 가꿀 수 있도록 다채로운
타입과 성분의 뷰티 오일을 엄선했다.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위부터) 나스 노노이 비디 글로우 II 남태평양의 모
노이 드 타히티 오일을 함유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동시에 건강한 윤기와 향기를
선사하는 보디 오일 100ml 8만6천원. 문의 02-
6905-3747 **카멜 아프리카 스무딩 오일 에센스** 헤어
드라이 전후에 사용하면 모발에 풍부한 영양을 공
급하고 부드러운 윤기를 더한다. 75ml 3만7천원
대. 문의 080-822-3322 **시슬리 블랙 로즈 프리
스 페이스 오일** 시슬리가 고안한 혁신 성분 카멜
리나 오일을 비롯해 오메가 6가 풍부한 들phin 오일,
피디나 파보니카 추출물 등을 담아 수분 부족형 피
부 및 건조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한다. 25ml 2
만4천원. 문의 080-549-0219 **바이레도 로즈 오
브 노 맨즈 렌즈 퍼플 오일** 로즈 엑스추르트의 황제 라
즈베리 노트를 더해 한층 풍부한 향미 향을 선사하는
물론 타입의 오드 퍼플 오일 7.5ml 9만2천원. 문
의 02-3479-1688 **이슬 레베리스 페이스 오일** 일
랑유랑 오일, 마카다미아 닷 오일, 동백 오일 등 수
분 보충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식물 추출물을 결
합한 페이스 오일. 25ml 6만7천원. 문의 1800-
1987 **클라리스 인스턴트 라이트 립 캠프트 오일**
#01 해니 자연에서 영감을 가져온 일곱 가지 세이
드로 진정하는 립 캠프트 오일. 끈적임 없이 입술을
근세 부드럽게 만드는 리치한 텍스처가 특징이다.
그 중 #01 해니는 별도의 색조 없이 립에 윤기와 볼
플감을 더한다. 7ml 2만8천원. 문의 080-542-
9052 **달티크 세틴 오일 포 바디 앤 헤어** 우루콩 오
일, 아보카도 오일 등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유효 성분을 함유한 멀티 세틴 오일 100ml 6만8천
원. 문의 02-3479-6049 **에디터 아메이**

이시테 조식회
클드 클리미니니포크, 나오펜 에메랄스(02-542-6022)

john varvatos

NICK JONAS

the new fragrance for men



수입판매처: 루세이오리엔탈리비탈 | www.ecc.kr | 문의: 080-383-5454



Snow. essentials

겨울 스포츠를 보다 즐겁게 만끽하도록 도와줄 패션 브랜드의
가능성 방한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란지 장식으로 허파 무드를 더한 남성용 스키 글러브 1백39만원, 방수, 방풍 기능을 갖춘으며 통가성, 단열성이 뛰어난 옐로 컬러 오리엔탈즈 다운 재킷 3백19만원 모두 **몽클레르 그레노블**, 로고 레터링 장식 나입론 밴드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고급 선글라스 1백만원대 **사펠**, 재킷 주머니에 꽃이 연출한 리네아 로시 칼렉션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라다**, 고무의 스포츠 시스템을 적용해 방풍, 방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한 보아저 더블 백 2백10만원 **로로피아나**, 패딩 처리한 고성능 성소제 비브 런(Viv Run) 스노 부츠 1백36만원 **로저 비비에**, 옐로 라이닝으로 재파를 준 나입론 패딩 부츠 41만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안타르시아 기법으로 장식한 모노그램 패턴이 감각적인 사아원 소재 방백 4백64만원 **루이 비통**, 베히비 캐시미어 소재의 아들링턴(Edlington) 스카프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귀여운 폰트 장식 올비니 65만원대 **사펠**, 에디터 **이혜미**

몽클레르 그레노블 02-514-0900 사펠 080-200-2700 프라다 02-3442-1830 로로피아나 02-546-0615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02-546-6090 루이 비통 02-3432-1854

이혜미 조스타



Gift IDEA

열 마디 말보다 더 진한 감동을 전해줄 연말연시 선물 리스트 10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hoi seung hyuk, jung ji an

11백40만원대 **프라다** 02-3218-5331 2브라이슬린 2백만원대 **오메가** 02-511-5797 32백78만원 **브리오니** 02-3274-6483 4여성용 링 52만원 **엠 디부사** 031-695-1267 51만9천원 **폴로 람프로렌** 02-6004-0220 63백30만원대 **론진** 02-310-1597 7박스 84만원 **구찌** 1577-1921 8이어링 29만9천원 **스외로브스키** 02-6930-9831 96만원 **시슬리** 080-549-0216 1022만원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 플리스** 02-2052-8822 115만5천원 **시슬리** 080-549-0216 12형수 6만9천원 **메르세데스-벤츠 파퓰스** 080-363-5454 1378만원 3 **몽클레르 그레노블** 02-514-0900 141백30만원대 **로로피아나** 02-546-0615 1554만원 **바버리** 080-700-8800 1613만9천원 **브룩스 브라더스** 02-2052-8822 17이어링 2천999만원대 **반들리프 아펠** 00798-852-16123 183천7백만원대 **비세몬** **콘스탄틴** 02-3446-0088 19신금 클립 이어링 3백만원대 **부세몬** 02-772-3508 2039만9천원 **조이 그라이스** 080-202-2002 21루즈 디올 꾸뛰르 컬렉션 세트 21만원대 **디올 뷰티** 080-342-9500 2275만원 **삼버트리 배리자모** 02-3430-7854 234백38만원 **막 스피라** 02-511-3935 24이어링 51만원 **글든듀** 1588-6576 2570만원 **바버리** 080-700-8800 264천3백만원대 **브레게** 02-6905-3571

이혜미 조스타, 이혜미 조스타 조스타

“조금 특별한 디자인의 제품을 골라보세요.
선물도 특별해지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백만원(100만원대)

27

35

28

29

34

30

33

31

32

“시계 선물은
함께한 시간과 추억까지
선물하는 것 같아 감동적이에요.”

이선영(주요리 디자이너)

27 54만원 미우미우 02-3218-5331 28 1천만원대 에르메스 02-542-6622 29 7만9천원 샤넬 080-332-2700
30 7백만원대 샤넬 워치 앤 화인 주얼리 080-200-2700
31 1백만원대 셀 로망 02-549-5741 32 2천5백만원대 불랑팡 02-3213-2261 33 향수 50ml 21만원대 나스 02-6905-3747 34 1천5백만원대 불가리 02-2056-0170
35 침 3백42만원 에르메스 02-542-6622



36

37



38

Silver
GIFT IDEA

51



“직접 구매하기엔 망설여질 수도 있는
화려한 컬러의 패션 아이템을 선물하세요.”

강진재(일러스트레이터)



49

50



39



40



41



42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은
선물로 실패하지 않아요. 디자인도 가격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죠.”

이종라(비이인플루언서)

45



44

43

48



47



46



la prairie
SWITZERLAND



67

“턱시도와 드레스처럼 두 가지 매력이 공존하는 디자인은 늘 최상이죠.”
간호사(중앙대학교 교수 & 패션 디렉터)

70

71

72

74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에르메스 트레이는 멋진 인테리어 소품이 돼요.”
오션 (조형사)

67 재킷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02-2118-6171 68 네르리스 7만9천원 알콜랜드 02-3448-5126 69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문버니 02-2051-4653 70 가격 미정 자참사 02-546-2790 71 4천 세트 1백85만원 바카라 02-3479-1812 72 브레이슬릿 2백75천원 보타가 베베타 02-3438-7682 73 1백80만원대 마블로 블라너 02-3444-2113 74 트레이 1백55만원 에르메스 02-542-6622 75 8만원대 모엣 & 샹동 02-2188-5100 76 1백34만원 지안비토 로시 02-6905-3690 77 2백99만원 지마후 02-3438-6107 78 52만원 샹비토레 페라카모 02-3430-7854

GIFT IDEA



52



55



56



57



54

“합리적인 가격으로 로맨틱한 카르띠에 레드 박스를 선물할 수 있어요.”
브민앤비주얼 디렉터

53



58

DECORTÉ



62



61



59



60



63



65



66



64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 아이템을 선물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스튜디오



68

69

77

75

78

76

73

Shiny Gold



79

80



81

84



89

가지고 있는 주얼리와 레이어드할 수 있도록 무난한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남윤선(주얼리)

88

향을 선물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한은지(파티스페)

87



86



82



83



85

79 파이스 오일 15ml 9만8천원대 **향물**
080-001-9500 **80** 아이링 1천2백만원대 **샤넬 워치**
엔 워치 주얼리 080-200-2700 **81** 보디 오일
250ml 13만6천원 **샤넬** 080-332-2700
82 아이링 1천5백10만원 **파티스페** 02-540-2297
83 4백70만원 **카르띠에** 1566-7277
84 1천1백만원대 **반클라프 아펠** 00789-852-16123
85 가격 미정 **타파니** 02-547-9488 **86** 네크라스
2천만원대 **부세온** 02-772-3508 **87** 4백만원대 **샤넬**
워치 엔 워치 주얼리 080-200-2700 **88** 향수 50ml
15만원대 **입생로랑 뷰티** 080-347-0089
89 네크라스 1천5백40만원 **파티스페** 02-540-2297
90 네크라스 2천2백만원대 **볼가리** 02-2056-0170



91



92



94



93



95

“오피스룩, 캐주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백을 나 자신에게 선물해보세요.”

홍수영(의사)



102



103



104



107



106



101



100

99

“메이크업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컬러에 도전하세요.”

노승기(메이크업 아티스트)



98



97



96

91 3백만원대 **콜롬보** 02-2230-1225
92 링 1천만원대 **부세온** 02-772-3508
93 링 1천5백만원대 **타파니** 02-3461-5558
94 1백50만원 **브루넬로 쿠차넬리** 02-3448-2931
95 2천2백만원 **파티스페** 02-540-2297
96 4천5백80만원 **롤렉스** 02-2112-1251
97 핸드백 가격 미정 **구찌** 1577-1921
98 반지갑 4만원 **차샤스** 02-3479-1140
99 링스타 4만원대 **연세강에서산 판매** **구찌 뷰티** 02-759-6811
100 가격 미정 **리드노브** 02-512-1310
101 7백80만원 **몽블랑** 1670-4810
102 1백90만원 **보스** 02-3438-6008
103 톱 35만원 **보스** 02-515-4088
104 머그컵 52만원 **구찌** 1577-1921
105 톱 48만원 **에르메네즈도 제나XXX** 02-518-0285
106 톱 14만9천원 **브루넬로 쿠차넬리** 02-2052-8822
107 톱 7만원대 **연세강에서산 판매** **타파니** 02-3479-6049

Green

GIFT IDEA

born to be Gold

놓칠 수 없는 삶의 순간들, 그 황금빛 순간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시계가 있다. 브랜드의 상징인 뱀 모티브를 한층 더 도시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시계, 바로 세르펜티 세투토리다.



풍요와 유혹의 상징인 뱀 모티브가 이탈리아의 독창성과 만나고, 여기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노하우까지 더해 놀라운 결과물이 탄생했다. 바로 세르펜티 세투토리다. 디자인적으로는 뱀 머리를 연상시키는 물방울 모양 케이스와 뱀 비늘 모티브 육각형 링크로 이뤄진 유연한 브레이슬릿을 통합한 것이 눈길을 끈다. 기존 세르펜티 컬렉션보다 좀 더 얇고 평평해진 케이스, 로만 주얼러를 상징하는 카보숑 컷 젤스톤 크라운을 세팅한 이 위치는 대담하고 젊고 현대적이다. 로즈 골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세 가지 소재로 출시했는데, 각각 플래인 혹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여기에 스틸과 스틸-로즈 골드 콤비 소재를 바탕으로 플래인 혹은 베젤 다이아몬드 세팅 모델을 함께 출시해 더욱 풍성한 컬렉션을 완성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웨이브 아트 센터에서는 세르펜티 세투토리 론칭 이벤트가 열렸다. 런던 패션 위크와 상하이 이벤트에 이어, 서울에서 화려한 데뷔를 한 것. 앰배서더 고소영을 비롯한 블랙핑크 리사, 엑소 수호, 배우 박해진과 이수혁 등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행사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위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브리치오 부오나마사 스틸리아니(Fabrizio Buonamassa Stigliani)를 만났다. **에디터 장미윤**

Q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서울의 첫인상은 어떠한가요?
서울은 매우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여성들도 매우 세련되었고요. 뇌샤텔에 있는 위치 디자인 팀에 한국 직원이 있어 문화와 취향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랄지는 않네요. (웃음) **Q 지난 11월, 혹은 앞으로는 어떤 한국 여성들이 불가리의 시계 중 어느 라인과 어울리는 것 같나요?**
한 가지만 고르기는 무척 어렵지만, 우리가 1947년부터 이어온 불가리의 핵심 가치를 잘 담고 있는 세르펜티 라인이 세련되고 우아한 서울 여성에게 잘 어울릴 듯하네요. **Q 이틀 다움과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감성을 제품 디자인에 담는 당신의 작업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오브제부터 건축**

물 같은 큰 조형물까지 주의 깊게 봅니다. 형태의 변형, 빛의 굴절과 반사, 그림자 등 모든 것이 저에게 영감을 주죠. 그 감성을 담아 시계를 디자인합니다. **Q 시계라는 작은 오브제에 그 모든 걸 집약하는 작업을 할 때 크기의 제약 때문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나요?** 디자이너에게 제약은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것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강한 사람들이 이탈리아 디자이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순한 오브제에 신선함을 불어넣은 대부분의 디자이너도 이탈리아인이었죠. **Q 불가리 워치메이킹은 '옥도 피니시드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크를 통해 노후의 정수를 보여줬어요. 부품까지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만들고 가장 얇은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적용하면서 첨단 기술까지 집약했죠. 새롭게 도전,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이 있나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름다움이 아닌 그야말로 새로운 미학입니다. 디자이너가 다양한 소재를 탐구하고, 기술적인 모험을 하고, 디자인의 변형을 꾀할 때 그가 속한 그룹이 그것을 실현해줄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미래와 운명은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Q 세르펜티 세투토리는 투보가스, 스피가보다 일상에 훨씬 더 적합한 느낌입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이라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고, 가격 면에서도 스틸 모델은 여성용 엔트리로도 합리적인 듯한데, 반응은 어떤가요?** 전 세계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르펜티 컬렉션의 독창성을 유지한 채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변형한다는 건 쉽지 않은 모험이었죠. 하지만 컨템퍼러리 브랜드로서 끊임없이 동시대 취향을 반영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에 도전했고, 해냈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새롭게 구상했음에도 세르펜티 컬렉션의 디자인 뿌리는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Q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 아이디어는 투보가스를 이브닝 위치로 생각하는 기존 고객을 위해 데일리 위치로서 뱀 모티브를 즐기게 하자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타깃으로 삼은 고객은 물론이고, 투보가스를 살짝 부담스러워하던 새로운 고객도 많이 유입되었죠. 베젤

과 크라운, 인덱스 등을 쉽게 변형할 수 있게 개발된 디자인이라(현재 열 가지 모델) 앞으로 더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불가리 위치는 이탈리아 크리에이티브와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스페셜티가 만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르펜티 세투토리의 어느 부분에서 이런 특징을 찾을 수 있나요?** 알아진 케이스에 장착한 무브먼트 등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세투토리는 여성 위치이다 보니 미학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브레이슬릿에 크기와 형태가 다른 네 가지 타입의 링크를 사용해 손목에서 물 흐르듯 움직이고 착 감기게 하는 것이 그것이죠. **Q 세르펜티 세투토리의 스타일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스틸 골드나 플래인 골드는 스포티하고 시크한 데님과 잘 어울립니다. 폴 파베는 이브닝 위치로 훌륭하고요. 이 시계는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훌륭한 디자인은 뒤에 숨어 있는 거창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뽐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임리스 디자인은 심플하고 쉬워야 하죠. **Q 당신은 본사인 이탈리아, 디자인과 워치메이킹 센터가 있는 스위스를 자주 오갈 듯하네요. 출장을 위한 시계로는 어떤 것을 주로 착용하시나요? 그리고 데일리 위치로는? 데일리 위치로도, 출장용 위치로도 옥도 피니시모를 즐겨 씁니다. 특히 GMT 기능은 정말 유용하죠. 스위스에 있을 때는 옥도 피니시모 블랙 세라믹 버전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Q 혹시 지금의 라인업 외에 완전 다른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현재의 라인업에 집중할 겁니다. 대신 소재나 디자인의 변주에 끊임없이 도전할 예정입니다. 문의 02-2056-0170**

1 불가리의 워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파브리치오 부오나마사 스틸리아니. **2** 로만 주얼러를 상징하는 카보숑 컷 젤스톤 크라운을 세팅한 세르펜티 세투토리. **3** 런던과 상하이에서 서울에서 세르펜티 세투토리 론칭 행사에 참석했다. **4**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가장 화려한 세르펜티 세투토리 버전.

Love yourself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없는 날이 없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추억이 되고, 벌써 12월. 올 한 해 수고한 당신은 선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컬링 모티브 옐로 골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에 총 8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벌 모티브 크로세 링, 베이지 골드에 5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링 미디엄 사이즈, 3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를 발을 표상하고 총 1,03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로세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링 미디엄 사이즈 모두 가격 미정 **사블 워치엔 하인 주얼리**. 문의 080-200-2700 **에디터 장미윤**

케이스 지름 44.2mm로 1백68시간의 파워리저브가 가능하다. 날짜, 요일, 월, 그리고 네 자리 연도 표시와 페페추얼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로 최상의 매력을 발산하는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 워치 4천7백만원대.



time to Watch

더 이상 시계가 시간 체크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이유. 작고 얇은 틀 안에 예술과 기술, 그리고 브랜드의 역사와 감성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 sponsored by IWC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모양을 구현해낸 더블문 모델. 18K 레드 골드 케이스 버전과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버전. 모두 산토니오의 블랙 옐로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했다.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솔리드 컬러 다이얼을 매치한 모델은 4천7백만원대, 18K 화이트 골드에 블루 다이얼을 매치한 모델은 5천1백만원대.

첨단 기술이 집약된 IWC 워치

가끔은 상대방의 눈보다 목소리나 손짓, 립이나 네일 컬러 등에 시선이 갈 때가 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물건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두어도 시선을 사로잡는 제품이 있다. 제품을 구성하는 작은 부품의 면면을 보고 있으면 만든 사람의 머릿속이 상상되기도. 시계가 바로 그런 물건 중 하나다. 예술 작품처럼 만든 시계가 있는가 하면, 신기술을 집약한 것도 있고, 화려함에 집중한 시계가 있는가 하면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고안된 것도 있다. 시계의 아우갯은 워치메이커가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IWC는 1868년 창립 이후 기술 개발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시계를 제작해온 스위스 워치 매뉴팩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기술력에 대한 열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정밀 기술과 앞선 디자인이 아우러진 최고급 수공예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디스플레이 창 크기, 숫자 인덱스와 시곗바늘 디자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나사 하나에도 브랜드의 유산과 역사, 그리고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시계 중 시간을 초월하는 아이코닉한 위치,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는 IWC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타임피스.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에서는 시계 최고의 공학 기술을 담기 위해 도전하는 장인 정신도 느껴진다.

손목 위에 올린 밤하늘

포르투기저 페페추얼 캘린더는 별도의 조작 없이 꾸준히 동력만 재충전하면 2499년까지 정확한 날짜를 표시한다. 한 달에 30일이 있든, 31일이 있든, 심지어 28일이나 29일로 끝나는 달에도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다. 수동으로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 날은 윤년을 건너뛰는 해인 2100년 3월 1일 딱 하루뿐. 그야말로 '퍼펙트' 페페추얼 캘린더다. 더 매력적인 것은 이런 목소리 나는 기능이 조작하기도 쉽다는 사실. 날짜가 하루 넘어가면 스스로 요일, 월, 연도, 문페이즈까지 같이 세팅되기 때문에 하나의 크라운으로 모든 세팅을 끝낼 수 있다. 12시 방향의 문페이즈 디

스플레이드 눈길을 사로잡는다. 실제 지름 3,476km인 달을 5mm로 축소했지만, 고스란히 전달되는 미학적 감성은 마음을 울린다. 실제 달 주기와의 오차는 5백77.5년 동안 단 하루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정확하다. 뱃뿔 모델은 독특하게 더블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는데, 이것은 IWC 엔지니어의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각각에서 볼 수 있는 달의 모양을 구현한 것. 날짜, 요일, 월 디스플레이에 이어 네 자리 연도 표시창과 아름다운 문페이즈를 모두 44.2mm의 케이스에 담았다. 볼록한 양각 인덱스와 깔끔한 나뭇잎 모양의 리프 핸드도 매력적이다. 솔리드 레드 골드 소재의 로터와 블루 컬러의 나사를 사용한 자체 제작 52000 칼리버 시리즈를 탑재했으며, 인체 공학적으로 최적화된 러그와 아이치형 전면 글라스, 고급스러운 이탈리아 산토니오의 스트랩을 매치했다. **에디터 장미윤**



7요일의 파워리저브가 가능한 오토매틱 무브먼트 52615 칼리버.

Party must go on

매 시즌 감각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디테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MCM.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파티 룩에 화룡점정이 되어줄 잇 백 3종을 출시했다.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1976년 독일 뮌헨에서 탄생해 디스코, 1980~90년대 뉴욕 힙합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은 MCM. 가족 공예에 관련된 장인 정신을 토대로 '뉴 스킨' 럭셔리를 표방하며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문화 예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MCM 콘서트 프로젝트> 전사와 음악적 요소를 차용한 'MCM 카세트' 라인 등에서 엿볼 수 있듯, 음악은 MCM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드. 다가오는 2020 S/S 컬렉션에서도 디스코와 테크노 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아이템을 제안한다. 특히 화려한 메탈 장식의 활용이 두드러지는데, 덕분에 간단한 매치만으로도 존재감을 자랑하는 파티 룩을 완성할 수 있다. 파티 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착용해도 좋을 만큼 실용성과 활동성도 강조했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활용해 크로스 보디 백과 톱 핸들 백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버킷 백과 빈 백, 미니 톱 핸들 백 등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구성했으며, 가장 전면에 특유의 MCM 로고 금속 장식을 적용해 고급스럽게 마무리했다.

© sponsored by MCM



(왼쪽 페이지 위부터) 스트랩에 체인을 더해 존재감을 살린 버킷 백 1백85만원, 시퀀스로 장식해 화려함을 극대화한 미니 스트러처 백 1백45만원. MCM (오른쪽 페이지)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크로스 보디 백과 톱 핸들 백 등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미니 백 89만5천원. MCM 문의 02-540-1404 에디터 이주이

NEWWOMAN

1960년대를 상징하는 모즈 룩, 판발롱 펜츠, 미니스커트로 대변되는 1970년대의 디스코 룩, 파워 수트를 필두로 한 1980년대의 메스클린 룩에 이르기까지, 20세기 후반을 관통하는 다채로운 스타일의 현대적인 재해석. *photographed by jang duk hwa*



자브라 패턴 모에어 니트 원피스 1백18만원, 블랙
타블락 가죽 미싱, 크로커 프린트 사이클이 부츠
2백28만원 모두 **만스마라**, 베이커 보이 캡 스타일의
'보방(Vauban)' 캡 90만원대 **에르메스**, 아일릿 장식
글러브 가죽 미싱 **말바리**, 스트라이프 패턴의 양모로
장식한 페이턴트 바게트 백 2백95만원 **렌디**.

과장된 퍼프 리본으로 엮은 넝
실크, 울 혼방 소재의 더블브레스트
재킷 6백30만원, 블랙 미니스커트
1백40만원, 레드 컬러 레이스 글러브
48만원, 클래식 무드 글라스 펄
이아링 97만원 모두 **구찌**. 화려한 비즈
일브로이더리 칼라가 돋보이는 화이트
셔츠 20만원대 **폴로 랠프로렌**,
셔츠 위로 착용한 트리플 스트링
네크리스 88만원 **판디**.



어깨 부분에 플리츠를 더해 인체감을 강조한
오버사이즈 체크 재킷, 칼라풀한 스웨이드를
패치워크한 미니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미우미우, 스웨글 장식 터틀넥 가격 미정
레오나르도, 함께 레이어드한 랩스킨 소재
셔츠 1백51만원 **롱샴**, GG 슈프림 캔버스
소재의 구찌 1955 룰스빗 숄더백 2백73만원,
빈티지한 핑크 레더 소재의 플랫홈 샌들 가격
미정 모두 **구찌**, 파울 샵스 가격 미정 **빌리**,
FF 후프 이아링 1백만원 **판디**.





로제티안 리틀 블랙투스 가격 미정 **사벨**, 시먼 장시 크롭트 블레이저 1백70만원대, 페이마베 스타일의 양 귀족 맨드 1백90만원, 장가린 블랙덤 힐 앵클부츠 1백22만원, **다두 용상**, 레터 트라임을 다윈 폴 소재 보터 및 59만원 **블랙투스**.

빈티지한 핑크 컬러 더블브레스트 재킷 3백10만원, 매스콜린 핏루저 1백20만원, 매들을 묶어 연출한 블랙 새틴 타이 가격 미정 모두 **자황시**, 이너로 착용한 블랙 터틀넥 가격 미정 **만스미라**, 볼드한 플루럴 모티브 골드 브로치 2백60만원 **구피**, 블랙 앵클부츠 가격 미정 **푸이 비롱**.



울 트윈드 소재의 클래식한
하운즈투스 체크 롱 코트
1천1백39만원 **샤넬**, 와이드한
새틴 리본을 트라밍한 펠트 햇
1백 34만원 **구찌**.



살바 메갈 장식 크롭트 톱, 글래머러스한
크리스털, 시퀸 장식 케이프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블랙 플리조스카트
가격 미정 **토즈**, 브라스, 크리스털
소재의 더블 링크 후프 이어링 61만9천원
말바리, 트윈스티드 참 브레이슬릿
93만원 **자황시**, 스웨이 향테이 골드 메달
커피 브레이슬릿 80만원대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셀로**.

헤어 **이재혜**
메이크업 **오미영**
모델 **Alina**
어시스턴트 **조소희**
에디터 **이재미**



만스파라 02-511-3935
에르메스 02-542-6622
말바리 02-3438-6140
렌디 02-2056-9023
폴로 힐프 로렌 02-6400-0133
구찌 1577-1921
미우미우 02-3218-5331
레오나드 02-3449-5163
롱샬 02-513-2288
빌리 02-3467-8935
샤넬 080-200-2700
말바리인스키 02-3433-6593
자황시 02-546-2790
루이비통 02-3432-1854
토즈 02-3438-6008
생 로랑 02-549-5741



for refined Woman

뉴욕을 대변하는 모던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접목한 가방으로 사랑받는 컨템퍼러리 패션 브랜드, 조이그라이슨의 오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미국을 대표하는 빅 디자이너 브랜드인 코치, 마크 제이콥스, 캘빈클라인 등에서 20년 이상 핸드백,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활동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이 그라이슨. 여성, 그리고 패션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2006년 본인의 레이블을 론칭한 이래 기본에 충실한 실용적인 디자인과 정제된 디테일을 접목한 가방을 통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충실히 대변하는 당당함과 자신감에서 시작되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움직이고 고요한 취향, 감식안, 가치관을 지키며 유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여성이야말로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이처럼 그녀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을 담아 탄생시킨 조이그라이슨은 가방을 단순한 제품이 아닌, 독창적인 생각과 이야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창의성의 산물로 여긴다. 뉴욕의 낮과 밤을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



을 얻어 매 시즌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하는 컬렉션 중 시크너치 모델은 나옴미 백. 디자이너가 자신을 위해 고안한 가방이라 밝힐 만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집약했다. "낮에는 다운타운의 미팅 자리에서 저를 독창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밤에는 트라이베카에 위치한 멋진 라운지 레스토랑에서 시크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줄 가방이 필요했어요. 직장 뿐 아니라 사교 행사를 비롯해 그 어떤 장소에서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뉴욕의 워킹 우먼에게서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예요. 바로 제 자신처럼요!" 그 밖에도 부드러운 텍스처, 가벼운 무게로 활동성을 높이고 우아한 골드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더한 키아바 백, 반달 모양의 기하학적 실루엣과 간결한 라인으로 모던함을 강조한 클레어 백, 보디를 감싸는 유니크한 벨트 디테일이 멋스러운 루비 사철 백 등 여러 여성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킬 핸드백을 만나볼 수 있다. 2015년 한국에 처음 론칭한 조이그라이슨은 현재 스타필드 하남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 고유의 감성을 전하고 있다. 테라조, 대리석, 금속, 아크릴 등 다채로운 소재가 어우러진 모던한 공간에서 조이그라이슨 고유의 감도 높은 디자인과 우수한 퀄리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그 밖에 스타필드 고양, 롯데백화점 본점과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천호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스토어 및 공식 홈페이지 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도 제품을 소개한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편안하고 멋스러운 데일리 백을 찾고 있다면, 조이그라이슨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080-202-2002 에디터 이혜미



1 | 옴브라 스카족 보디, 울렷을 장식한 정교한 스타치와 입체적인 엠보싱이 돋보이는 베이지 컬러 나옴미 백 37만8천원, 레드 컬러의 나옴미 미니 백 33만8천원 모두 조이그라이슨 2 |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높인 블랙 슈링론 스카족 소재의 키아바 호보백 38만8천원 조이그라이슨, 3 | 루비 사철 백을 든 뉴요커의 모습, 4 | 달착 가능한 스트랩을 달아 토트백 또는 숄더백으로 연출 가능한 미러 컬러 루비 미니점 사철 백 49만8천원 조이그라이슨.

● sponsored by JOY GRAYSON

(위부터 차례로)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얻은 트라이앵글 모티브를 반지 디자인에 새긴 그레이스 카를 링, 남성용 화이트 골드 제품 1백5만원, 여성용 로즈 골드 제품 85만원, 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프롱 세팅해 화려한 달라이트 워딩 밴드 모두 가격 미정, 트라이앵글 모티브를 새긴 로즈 골드 링에 약 0.33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프롱 세팅한 엔디루사의 시크너치 워딩 링, 그레이스 컬렉션 가격 미정, 만개한 꽃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스럽고 앙트르한 블룸 워딩 링, 0.11캐럿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쪽에 0.05캐럿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우아함을 더했다. 92만원, 최상의 컬러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뽀뽀 다이아몬드 컬렉션 네크리스 65만8천원, 반지 32만8천원,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피베 세팅한 브릴리언트 컬렉션 네크리스와 반지 모두 가격 미정, 이틀당 게 피아는 꽃을 형상한 블룸 워딩 밴드 각 68만원, 모두 엔디루사, 문의 031-686-1267 에디터 이효이



● sponsored by EMDIRUSA

Precious for you

엔디루사가 사랑하는 연인 혹은 한 해 동안 누구보다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로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제안한다. 고급스러운 브라이덜 라인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뽀뽀 다이아몬드 라인 주얼리로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SPECIAL YEAR-END EVENT

〈스타일 조선일보〉와 조이그라이슨이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이 쿠폰을 소지하고 전국 백화점에 입점한 조이그라이슨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께 정상 제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진행 기간 2019.12.4(수)~31(화) ◆ 문의 02-2225-0127
◆ 진행 매장 전국 백화점 내 입점한 조이그라이슨 매점스타필드 하남·고양, 롯데백화점 본점·영등포점·울산점·대구점, 현대백화점 판교점·천호점·다큐브스타점·칸텍스점·충정점·대구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갤러리아전주점·타임점, AK 플라자수원점
※ 1인 1매 한정 사용, 타 프로모션 중복 불가입니다.

NEW STORE OF EMDIRUSA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론칭 기념 이벤트

엔디루사가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매장 오픈을 기념해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흘 동안 해당 매장에서 0.1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 4' 네크리스와 '프리즘' 네크리스를 각각 36만원에 선보이며, 11월 29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진 품목(특가 상품 제외)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장에서는 다채로운 엔디루사 전 제품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다.

※ 본 이벤트는 기간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men's universe in Seoul



1 ©KYUNGSUB SHIN

지난 11월 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에르메스 남성 컬렉션의 독창성, 문화, 에너지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열렸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에르메스 맨즈 유니버스 행사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이를 간접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제품, 거기에 얽힌 이야기 등을 모았다.

런웨이로 이어진 특별한 길, 'Walk the Line'

지난 11월 4일 열린 에르메스 맨즈 유니버스 행사는 2019 F/W 컬렉션 런웨이 쇼를 필두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매종 고유의 미학과 철학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전통의 숨결이 느껴지는 고즈넉한 정동길 한 자락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은 이날 저녁만큼은 서울에서 가장 모던한 장소로 탈바꿈했고,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에르메스 특유의 오렌지 컬러 내온 튜브가 기하학적인 직선으로 이어지며 모두의 발걸음을 행사장 내부로 이끌었다.

미술관 2~3층 공간을 아우르며 선보인 이번 시즌 컬렉션의 테마는 전통과 새로움, 장인 정신과 혁신, 상상의 세계와 현실 등 얼핏 상충하는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가치의 조화. 남성 유니버스 아티스틱 디렉터인 베로니크 니사나안(Veronique Nichanian)은 섬세하면서도 간결한 직선과 곡선의 만남,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패브릭 소재와 매력적인 디테일 장식의 조화 등으로 이를 풀어냈다. 미드나잇 블루, 빈트 오렌지, 차콜, 빈트 브라운 등 고급스럽고 차분한 컬러 팔레트가 주를 이룬 가운데, 커브 형태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감각적인 양가죽 블루중, 바렌 듯한 효과를 낸 송아지가죽 플리즈 팬츠, 톱 스티칭과 드래건 프린트가 돋보이는 테이퍼드 셔츠 등 매종 특유의 미학을 담은 아이템이 컬렉션을 가득 채웠다. 구조적인 실루엣과 유연한 소재의 어울림, 기능적인 동시에 감각을 충족시키는 디자인, 우아하면서도 워트 넘치는 디테일은 에르메스가 지향하는 남성성을 투영한 것. 한편 이날 런웨이에는 파리,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델 이외에도 특별한 인사가 참여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에르메스 룩을 입은 세프 샘김, 배우 유지태, 수영 선수 박태환, 포토그래퍼 홍장현, 카가오 대표 여민수 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동시대 서울을 살아가며 우아함을 잃지 않는 남성의 모습 그 자체였다.



©INKI KANG



4



©KYUNGSUB SHIN



©KYUNGSUB SHIN



©KYUNGSUB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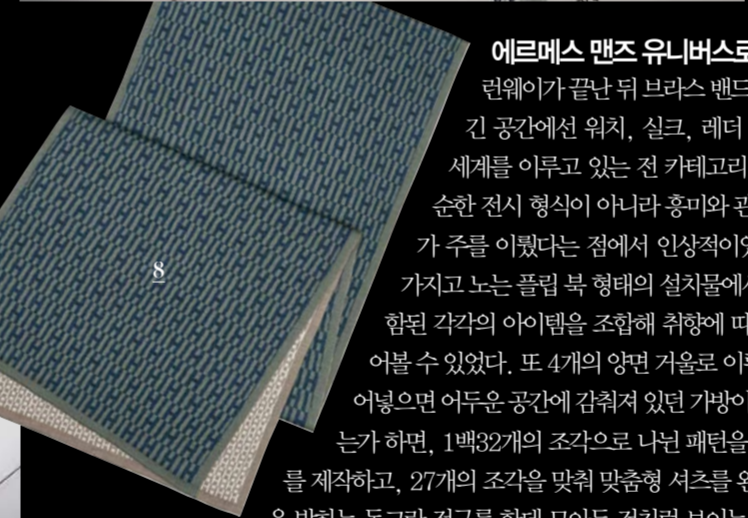
©HYUK KIM



©HYUK KIM



©KYUNGSUB SHIN



8

에르메스 맨즈 유니버스로의 초대

런웨이가 끝난 뒤 브라스 밴드의 연주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 공간에선 위치, 실크, 레더 컬렉션 등 에르메스의 남성 세계를 이루고 있는 전 카테고리 제품을 만날 수 있었다. 단 순한 전시 형식이 아니라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체험형 전시가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는데, 이를 테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플립 북 형태의 설치물에서는 여덟 가지 다른 룩에 포함된 각각의 아이템을 조합해 취향에 따른 유니크한 스타일을 만들어볼 수 있었다. 또 4개의 양면 거울로 이뤄진 상자 중 하나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두운 공간에 감춰져 있던 가방이 손에 잡히며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1백32개의 조각으로 나뉜 패턴을 찾아 에르메스의 맞춤 수트를 제작하고, 27개의 조각을 맞춰 맞춤형 셔츠를 완성해보는 식. 한편 밝은 빛을 발하는 둥그란 전구를 한데 모아둔 것처럼 보이는 벽 형태의 설치물에서는 시계, 팔찌, 만지, 컵스, 벨트, 작은 가죽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날 선보인 사계 중에는 특별히 올해 2019 GPHG에서 최고의 캘린더 및 전문 분야 시계로 선정된 에르메스 아쏘 레호 드 라 룬도 포함되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문체이즈를 동시에 보여주는 독특한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끄는 모델로, 실제 우주에서 떨어진 암석을 소재로 달의 사실적인 모습을 구현해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같은 공간에서 디제잉과 공연, 현장에서 세프가 직접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로 채워진 애프터 파티는 즐거움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모든 순간이 에르메스의 맨즈 유니버스를 오감으로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1 행사가 열린 서울시립미술관. 2 런웨이 쇼 백스태이지 이미지. 3 에르메스 남성 컬렉션의 모데라터를 경험할 수 있었던 런웨이 쇼. 4 에르메스 아쏘 레호 드 라 룬 위치. 5 시계를 비롯해 팔찌, 컵스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전시한 공간. 6 일러스트를 통해 유쾌한 방식으로 선보인 타이 컬렉션. 7 여덟 가지 다른 룩에 포함된 아이템을 나만의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 설치물. 8 캐시미어와 실크 혼방 남성 스카프. 9, 10 런웨이에 선 배우 유지태, 가수 샘김. 11 남성 실크 컬렉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토프 고누(좌)와 남성 유니버스 아티스틱 디렉터 베로니크 니사나안(우). 12 애프터 파티 공연 현장. 13 행사장에 전시된 이야기북 컬렉션.



©KYUNG NAM



©KYUNGSUB SHIN



©INKI KANG

art of Silk

행사를 하루 앞둔 11월 3일 오후, <스타일 조선일보>는 서울에서 열린 맨즈 유니버스 이벤트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르메스 남성 실크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토프 고누(Christophe Goineau)를 만나고자 메종 에르메스 도산파코로 향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실크와 가죽으로 둘러싸인 이룩한 공간에서 그와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Aléthe Nicolai

Style Chosun(이하 S) 비로 내일, 서울에서 에르메스의 남성 제품을 소개하는 큰 이벤트가 열립니다. 실크 컬렉션 디렉터인 당신의 '에르메스 맨즈 유니버스는 어떤 모습입니까? **Christophe Goineau(이하 C)** 1940년대 초부터 시작한 에르메스 실크 컬렉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 유니버스를 통괄하는 에르메스의 철학과 정신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남성 고객도 여성 스킨을 구매할 수 있죠. 다만 남성 총괄 아티스틱 디렉터인 베르니크 니사니인과 저는 컬렉션 구성 단계에서 남성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생각합니다. 기령 실크 제품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선호할 프린트(모티프)를 고안하고, 그들이 스킨을 연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온전히 고객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S 매 시즌 선보이는 실크 컬렉션의 전반적인 디렉팅 방식이 궁금합니다. 에르메스는 특정 컬러와 패턴, 소재를 통해 유행을 제시하는 브랜드도 아닌 데다, 실크 컬렉션 내에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다채로운 라인이 존재하니까요. **C** 우선 베르니크가 시즌에 따라 특정한 컬러 팔레트를 제시하면 저는 광범위한 컬러 중 적당한 것을 추려 실크 액세서리군을 전개합니다. 매 시즌 진화 수준이 큰 변화는 없는 편이에요. 기본 라인업에 미묘한 변형을 더하는데, 이것이 곧 해당 시즌을 정의하게 되죠.

S 디자인, 컬러링, 프린팅 등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C** 형태, 소재, 컬러 모두 중요하지만, 오브제의 최종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컬러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훌륭하더라도 컬러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뛰어난 제품이 탄생하기 어려우니까요. 디자인은 색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S 그렇다면 제품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컬러는 무엇입니까? **C** 블루

입니다.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컬러예요. 흔히 에르메스 하면 고유의 주황색을 떠올리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블루야말로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컬러인 것 같아요. 강하지 않고 균형 잡혀 있으며, 스카이 블루부터 머린 블루까지 여러가지 톤으로 풀어낼 수 있어 다양한 것을 함께 사용해도 과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문화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하늘, 바다와 같은 자연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컬렉션 전체를 블루 컬러로만 구성해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샘플을 만들 때 항상 블루 컬러로 먼저 제작하곤 합니다. 마치 배지 필터 같아서, 물건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나게 해주거든요. 색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조합 역시 무한하고요.

S 당신의 옷장에 스킨과 몇 장이나 걸쳐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더불어 가장 즐겨 착용하는 것은 어떤 제품입니까? **C** 사실 스킨프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완제품과 더불어 미완성 프로토타입까지 보유하고 있죠. 스킨프로 가장 선호하는 소재는 캐시미어와 실크 혼방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동시에 잘 미끄러져 내리지 않거든요. 사이즈를 놓고 보았을 때 100×100cm 크기의 남성용 카레를 좋아해요. 동일한 라인의 여성용 모델보다는 좀 더 큰데, 목에 훌훌 둘러 연출했을 때 길이가 적당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좋거든요. 오늘 착용하고 온 블루 컬러 '로장지' 역시 손쉽게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 애용합니다. 평소 '심플리시티'를 추구하는데, 편안하고 멋스러운 룩을 연출하기에 스킨프만 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요.

S 지난해 여러 도시에서 개최한 '실크 믹스' 행사 관련 인터뷰를 보니 실크 제품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셨어요. 이전까지 생 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C** 에르메스 매종에서는 관계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단 실크 컬렉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에르메스의 특정 제품을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기억, 사랑을 표현한 기억, 인생의 특별한 날 착용했던 기억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해요. 추억을 상기시키는 감정과 연관된 오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매종에서 마주친 고객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중 하나는 "이 스킨프를 10년 동안 매고 있는데 여전히 너무 좋다"라는 말이에요. 포부르 생토노레 매장에서 만난 한 고객에게도 아주 오래된 실크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1 에르메스의 2019 F/W 시즌 남성 실크 컬렉션 중 라지 사이즈 블루 로장지 모델. 실크와 캐시미어를 혼방해 사용했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호스 모티프가 이롭다. 2 인도적인 프린트로 이번 시즌 이목을 끈 '오의(Aaaargh)' 스카프. 3, 4 스카프와 티를 착용한 모델.

브랜드의 제품은 낡고 오래되어서 버렸는데, 에르메스 타이만큼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타이에 얼룩이 졌는데도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싶은, 특별한 물건이라면서요.

S 30년 이상 에르메스에 몸담았고, 현재 실크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는 당신에게 도전 과제가 있습니까? **C** 6개월마다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여야 하는 것이 도전 그 자체죠. 모던함을 가미하는 동시에 에르메스 고유의 스타일을 잃지 않아야 하니, 그 중간에서 균형을 찾는 게 어렵게 느껴져요. 마치 작가가 글을 쓸 때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잃지 않는 선에서 색다른 스토리를 풀어내야 하는 것처럼요.

S 그렇게 컬렉션을 반복해서 만든다 창의적인 영감이나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C** 한국에 옵니다. (웃음) 정말이에요. 한국 젊은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모습이 많은 영감을 줍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2주 전에는 메종의 동료와 함께 멕시코시티를 방문했는데, 그 독특하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얻고 왔죠.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길거리에서도 관심 있는 요소가 눈에 들어오면 모르는 사람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착용한 패브릭 아이템의 컬러, 모티프 등을 눈에 익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은 에르메스의 아카이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카이브라고 하면 먼지가 쌓여 있는 과거의 것, 지루한 무언가를 연상하곤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카이브를 '무게가 아닌 행운이라 여깁니다. 1950~70년대 제품을 보면 현재보다 훨씬 대담하고 화려한 디자인이 많아 흥미로워요. 이를 가볍게 변형하거나 색상에 변화를 주어 컬렉션에 응용하기도 하고요.

S 오늘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자이너, 아티스트 등은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범위에 걸친 창의적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라이프스타일과 예술 전분야를 아우르는 매종에 오랜 시간 몸담은 만큼 실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C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음악을 듣지 않은 하루는 마치 낭비한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그 밖에 건축, 실내 디자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집이 곧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는 점이나 다양한 배치 및 조합으로 전혀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점 등이 흥미로워요.

S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은 실크 믹스 행사처럼, 다른 장르를 혼합한 재미있는 프로젝트 또는 제품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C** 남성과 여성 실크 제품을 통합한 컬렉션 개발을 생각 중입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색다른 변화를 위해 폐미닌한 동시에 매스쿨린하고, 아티스틱한 컬렉션을 기획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2020년에는 남성 유니버스와 여성 유니버스가 조우하는 거죠. 에디터 아테미

Stay Big, stay cool

마이크로 미니 백이 런웨이를 활보하는 지금도 투박한 듯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젠더리스 무드의 빅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안보 컬러의 핸드라이팅 로고 자수가 멋스러운 컵 66만원 **지황시**, 빈티지한 느낌의 헤마드 레더 소재 바건디 컬러 쇼퍼백 2백23만2천원 **토즈**, 역동적인 무드의 'GIVENCHY PARIS' 프린트 민도라 메신저 백 2백22만원 **지황시**, 레드 컬러 스카프를 다룬 캔버스 소재의 에르백 기반 기령 미팅 **에르메스**, 플라워 패턴 링크, 페이턴트 가죽을 엮은 모들식 인트리아트 패턴이 모던한 라지 토트백 94만4천원 **보타가 베네타**, 울더 스트랩과 톱 핸들을 응용해 더블 백, 백백, 토트백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옐로 스포트 레더 백 2백63만원 **구찌**, 에디터 **아테미**

지황시 02-6370-4099 **토즈** 02-3438-6008 **에르메스** 02-542-6622 **보타가 베네타** 02-3438-7882 **구찌** 1577-1921



for luminous Skin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저절로 피땀결과 탄력을 잃은 피부, 그리고 칙칙해진 안색까지. 에스티 로더가 선보이는 리-뉴트리브 라인 신제품 두 가지가 이러한 고민에 신박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이다.

모든 여성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창립자 에스티 로더 여사의 철학 아래, 60여 년 동안 뷰티업계의 선구자 역할을 이어오고 있는 에스티 로더. 지속적인 연구, 기술과 혁신이 브랜드를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최상의 것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등 다양한 라인을 전개하는데, 1956년에는 리-뉴트리브 크림을 소개하며 세계 곳곳에서 구한 진귀한 원료, 가장 진보한 과학, 감각적 경험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 프레스티지 스킨케어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당시 크림의 가격이 1백15달러였음에도 고객들은 신뢰와 애정을 보였다. 그리고 올해 신제품으로 선보인 리-뉴트리브 얼티메이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메이티브 에너지 듀얼 인퓨전과 리-뉴트리브 울트라 래디언스 세럼 쿠션으로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리-뉴트리브 얼티메이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메이티브 에너지 듀얼 인퓨전
희귀하고 진귀한 원료만을 선정해 프레스티지 스킨케어의 새로운 장을 연 리-뉴트리브 라인은 지속적인 연구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무리 값비싼 원료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에스티 로더는 두 가지 세럼의 고유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 패키지에 각각의 세럼을 담았다. 용기를 펴뿔하면 부드럽게 블렌딩된 세럼이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골드 패키지에 담긴 원료는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추출물. 트러플만 재배하는 프랑스 남서 지역 농장에서 수확한다. 숙련된 엑스트라 클래스 트러플 재배자에게서 공급받은 엄선한 트러플을 약 1만 시간 이상 정성 들여 피부에 유효한 성분만을 뽑아낸다. 추출한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성분은 혁신적인 SIRT-2 테크놀로지 및 안티에이징 효과에 집중된 유스-스테이닝 기술을 적용해 골드 패키지에 담는다. 은은하게 빛나는 플래티넘 패키지는 진귀한 남양진주 성분과 정제된 24K 골드를 더



했다. 천연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남양진주 성분은 피부에 광채와 촉촉함을 부여하며, 진주의 단백질 성분은 피부에 닿았을 때 혈액순환과 피부 회복에 도움을 주어 얼굴에 자연스러운 핏색이 돌게 한다. 섬세하게 배합된 부드러운 제형이 피부에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 촉촉하고 가벼운 텍스처가 피부를 윤곽하게 하며 얼굴에 빛을 되살려준다(30ml 54만원대).



리-뉴트리브 울트라 래디언스 세럼 쿠션 SPF 40/PA++++
스킨케어를 통해 내부의 빛을 잡았다면, 다음은 외부의 빛을 자연스럽게 밝힐 차례. 에스티 로더는 커버와 광채, 지속력과 촉촉함까지, 여성들이 베이스 메이크업에 바라는 수많은 요청 사항에 신제품 리-뉴트리브 울트라 래디언스 세럼 쿠션으로 답했다. 파운데이션 명가에서 가장 진보된 스킨케어 기술을 적용한 세럼 쿠션을 출시한 것. 세럼 쿠션은 미세 보석 입자 덕분에 바르자마자 즉각적인 윤기를 부여하고 빛나는 피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의 보석이라고 불리며 눈부시게 밝은 광채를 자랑하는 페리도트, 아르헨티나에서 사랑의 원석이라고 불리는 로도크사이트, 옥 중에서도 가장 귀한 초록색 옥편 아니라 사파이어, 루비 등 우아하면서도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 입자들이 피부를 아름답게 연출한다. 보습력도 놓치지 않았다. 히알루론산과 같은 수분 앰플이 오랜 시간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어 12시간 동안 지속적인 수분감이 유지된다. SPF 40/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는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는 무너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며, 은은한 꽃향이 기본을 산뜻하게 한다.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보석 모양에서 영감을 얻어 다각도로 빛나는 케이스 전면과 얼굴 굴곡에도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각 형태의 스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세심함까지 놓치지 않았다. 색상은 쿨 포슬린, 워 포슬린, 쿨 바닐라, 워 바닐라, 네 가지 톤으로 선보인다(12gX2 15만원). 문의 02-6971-3212 에스티 로더 이주이

© sponsored by ESTÉE LAUDER
사진: 정은아, 이태리, 윤지

advanced Cleansing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클렌징 경험을 선사할 샤넬의 수블리마지 클렌징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데일리 뷰티 루틴의 시작이자 가장 핵심적인 단계, 클렌징. 메이크업 잔여물, 피부 노폐물,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을 잘 씻어내지 않았을 때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꼼꼼한 세안과 좋은 성분을 함유한 클렌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반갑게도 샤넬에서 스킨케어의 정수, 수블리마지 라인의 클렌징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피부 타입, 기온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각기 다른 특성을 갖춘 젤-투-오일 클렌저, 워터 클렌저, 클렌징 폼, 페이스 스크럽, 총 네 가지 제품으로 구성했다. 이들 모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바닐라 플라보노이드와 워터와 피부 정화에 효과적인 허문기나 추출물 등 풍부한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허문기나 식물은 각질 세포 간의 결합을 끊어내는 것을 도와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깔끔히 제거하며, 바닐라 플라보노이드에서 추출한 고농축 항산화 성분은 워터는 각질을 제거한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달콤한 바닐라 향이 기본 좋은 수블리마지 젤-투-오일 클렌저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 텍스처로, 물에 닿는 순간 뽀얀 우윳빛의 가벼운 포물리로 바뀌며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을 즉각 제거하는 제품. 필수지방산을 함유한 카멜리아 오일을 더해 세안한 후에도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특히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다음으로 수블리마지 클렌징 워터는 살인한 젤-플루이드 텍스처로, 물로 씻어낼 필요가 없어 보다 간편하게 클렌징을 끝낼 수 있다. 히알루론산과 자연에서 유래한 보습 성분인 피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막으며, 마무리가 시원하게 피지 번개가 활발한 지성 피부에 적합하다. 이 두 가지 제품으로 1차 클렌징을 마친 뒤 2차 클렌징 단계에서 사용하기 알맞은 수블리마지 리치 클렌징 폼은 팽팽한 비누 이상의 가치와 효능을 지녔다. 천연 유희제, 시아버터, 보습제를 조합해 가볍게 문지르면 보드랍고 풍부한 거품이 일어나, 자극 없이 촉촉한 세안을 돕는다. 한편 클렌징 라주엘에 더하면 폼을 스크럽 제품도 함께 출시한다. 진귀한 바닐라 시드와 호호바 시드 성분을 함유한 블랙 컬러의 젤 스크럽으로,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한다. 일주일에 2~3회, 눈가를 제외한 얼굴과 목에 발라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고 씻어내면 끝. 균일하게 정돈된 피부결과 한층 밝아진 피부 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별로 보다 효과적인 세안을 도와줄 샤넬 수블리마지 클렌징 컬렉션은 찬 바람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불필요한 각질층이 두꺼워져 안색까지 칙칙해지는 겨울에 더욱 완벽한 선택이 될 듯. 간단한 클렌징만으로 피부 속부터 화사하게 맑아지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80-332-2700 에스티 로더 이주이

© sponsored by CHANEL

(왼쪽부터) 수블리마지 리치 클렌징 폼 115g 10만7천원, 수블리마지 젤-투-오일 클렌저 150ml 11만9천원, 수블리마지 클렌징 워터 125ml 11만9천원, 수블리마지 바닐라 시드 페이스 스크럽 50g 9만8천원 모두 샤넬.

call me by My Name

향으로 기억되기보다는 하나의 페르소나로 기억되고 싶은 향수 셋,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왼쪽부터) 토카 줄리아 토카(tocca)는 터치(touch)의 이탈리아어, 제품 하나하나에 주인공이 지닌 매력적인 스토리를 담았다. 여덟 가지 시리즈 중 토카 줄리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아티스트와 뮤즈의 로맨틱한 관계를 연상시키는 은화하고 매력적인 향이다. 그린 애플, 핑크 돌립, 바닐라 오가드, 그리고 애플 향을 매치해 달콤하며 시원하다. 50ml 9만9천원 **펜탈리곤스 헐렌** 헐렌은 펙 독립적인 여성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가까이 시간을 할애하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도 아는 당당한 여자. 이런 행련을 묘사하기 위해 투베로즈 향에 스파클링한 핑크 페퍼론의 향기를 더했고, 민디안을 첨가했다. 여기에 재스민 향을 가미해 시미리에서 만난 재지 있는 남자 테다와 '셀'라는, 한층 달콤하고 매력적인 행련을 완성했다. 75ml 37만원. **포디노르 상탈카다모** 향신료 카르다모의 탄생이자 동방의 풍요로운 대지에 세운 사립재목, 그곳의 미국적인 정원에서 낮 2시쯤 그늘진 나무 아래서 모처럼 여유를 즐기는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귀족 여성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다. 그린 노트로 시작해 우디 노트로 강렬하게 마무리되는데, 샌드우드와 벤조인의 따스하고 섬세한 부드러움도 찬찬하게 깔려 있다. 50ml 8만3천원 문의 080-363-5454 에디터 장미윤

© sponsored by CEDInternational

a glimpse of Craftsmanship

매해 라프레리는 홀리데이 시즌에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올해는 <장인 정신, 그 열정에의 조우>를 제작했는데, 이를 통해 성분, 과학, 아트와 같은 라프레리만이 지닌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라프레리의 비밀

스위스 레만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는 클리닉 라프레리(Clinique La Prairie). 이곳의 과학자들은 다시 젊음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수년간 연구를 이어간 결과, 마침내 1931년 세포 치료법 개발에 성공했다. 인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세계 곳곳에서 예술가, 왕족 및 지도자들의 발걸음을 클리닉으로 이끌었다. 그 치료법을 바탕으로 한 켈루라 콤플렉스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라프레리의 심장과도 같은 비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특허 기술 등록과 진행 외에 세 가지 별도의 연구실을 만들어 어떤 과학자나 연구자도 정확한 제조법을 알지 못하도록 보안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독점적인 켈루라 콤플렉스는 처음 출시된 이래로 해를 거듭하며 발전되어왔고, 여기에 캐비아와 금, 희귀한 플래티늄 같은 귀중한 원료를 더해 라프레리의 제품을 과학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라프레리는 4개의 메인 라인을 선보인다. 진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자원을 담은 플래티늄 래어 컬렉션, 스킨케어 최초로 캐비아 성분을 담은 스킨 캐비아 컬렉션, 탁월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자랑하는 화이트 캐비아 컬렉션, 그리고 손금에서 영감을 받아 윤기 및 영양 공급에 집중한 레디언스 컬렉션이 바로 그것. 각각의 라인엔 정제된 보석처럼 빛나는 플래티늄의 영원함, 생명이 시작된 바다에서 얻은 캐비아의 무한 잠재력과 진귀함, 펄 캡슐에 담긴 특별한 힘을 품은 화이트 캐비아의 광채, 그리고 골드의 화려함 같은 흔치 않은 성분의 특징까지 포함하고 있다.

라프레리를 이야기하다

올해도 라프레리는 브랜드 철학과 메인 라인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장막에 가려져 있던 마법같이 신비하고 장엄한 장인 정신의 순간을 드러내는 이 영상은 총 3개. 먼저 <Chapter 1. 진귀한 성분>은 깊고 깊은 바다에서,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협곡에서, 오래전 소멸한 행성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되는 여정을 담았다. 바로 플래티늄, 캐비아, 골드 등 라프레리의 독자적인 성분에 집중한 스토리. <Chapter 2. 마법의 연금술>에서는 조각가가 작품을 창조하듯 스위스의 라프레리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상의 포물러를 감상할 수 있는데, 과학이 예술로 승화되는 그 신비한 세계를 찾는 섬세한 여정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Chapter 3. 정교한 미학>에서는 디자인의 모든 요소에 컨템퍼러리 미학을 담고, 그것을 스킨케어의 감동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라프레리의 면모를 보여준다. 바우하우스의 결정적인 규칙에 영감을 받은 용기와 패기장은 미니멀리즘 그 자체. 2017년부터 아트 바젤과 파르너십을 체결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라프레리의 취향까지 담았다. 영상 <A Glimpse of Craftsmanship: 장인 정신, 그 열정에의 조우>는 라프레리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 공들인 연구로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요로운 포물러와 컨템퍼러리 아트를 담은 용기와 패기장까지. 라프레리의 오늘은 매일 스킨케어 역사를 다시 써온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문의 02-511-6626, www.la-prairie.co.kr 에디터 장미윤

© sponsored by la prairie



PLATINUM

Cleansing Water

(왼쪽부터) **에이지투웬티스 클리어 에센스 클렌징 워터** 모공보다 작은 마이크로 메쉬와 입자가 피마겔 사이사이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세정해준다. 500ml 1만8천원. 문의 080-024-7357 **사벨 오 마세라리** 자극을 주지 않는 96% 자연 유래 성분 포몰라가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인티폴루션 클렌저. 150ml 6만1천원. 문의 080-332-2700 **오희미라클 모이스처 클렌징 리퀴드** 천연 유래 세라미이드 성분이 피부 보습층을 촉촉하게 채우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알인원 타입 클렌저. 150ml 3만3천원. 문의 080-023-7007 **시슬리 오 에쉬카스** 피부 정화 작용이 탁월한 시카피 성분이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정돈해주는 알인원 클렌징 워터. 300ml 12만1천원. 문의 080-549-0216

Cleansing Oil

(왼쪽부터) **라운드 어라운드 그린티 클렌징 오일** 다섯 가지 식물성 오일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노폐물을 상쾌하게 세정하는 클렌징 오일. 200ml 1만8천원. 문의 1577-4887 **데코르테 허니듀**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과 마누카 꿀 성분이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모공 속 산화 피마까지 씻어낸다. 177ml 3만9천원. 문의 080-568-3111 **프레쉬 시베리 스킨 뉴트리션 클렌징 오일** 피부 노폐물은 물론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자극 없이 지워주는 산차나무 오일 성분의 클렌저. 150ml 6만3천원. 문의 080-822-9500 **특시담 이모르텔 프레스시드 클렌징 오일** 천연 유·수분 보습액은 유지해 주고,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포함한 색조 화장은 말끔하게 지워주는 클렌징 오일. 200ml 3만6천원. 문의 02-2054-0559



all about Cleanser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지우고 싶을 땐 클렌징 오일, 상쾌한 세안을 원한다면 클렌징 폼, 씻기도 귀찮은 날엔 클렌징 워터, 피부가 민감하다면 클렌징 밀크와 크림, 피부 상태와 기분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네 가지 타입의 클렌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leansing Foam

(왼쪽부터) **이솝 페블리스 페이스 클렌저** 수분을 공급하는 알로에 잎과 향산화 성분의 녹차 추출물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허브 향 클렌저. 200ml 5만3천원. 문의 1800-1987 **포달리 인스턴트 포밍 클렌저** 특허받은 크레티프 시드 폴리페놀 성분이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피부 자극 없이 제거해주는 약산성 포밍 클렌저. 150ml 2만8천원. 문의 02-6011-0212 **시슬리 젤 두 네드와양 오 레진노 트로백** 크림이 한 거품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씻어주고 과도한 피지를 제거해준다. 120ml 9만8천원. 문의 080-549-0216 **프레쉬 소이 페이스 클렌저** 풍부한 콩 단백질이 피부 필수 영양분과 수분은 빼앗지 않으면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저자극 클렌저. 150ml 5만7천원. 문의 080-822-9500 **산타마리아 노벨라 사포네 벨루비나** 아자수와 코코넛 오일 성분이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저자극 세안 바누. 150g 4만7천원. 문의 02-3443-5940 **키엘 칼렌듈라 꽃잎 클렌저** 식물성 허브 성분인 칼렌듈라 추출물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세안 후 평가지 않는 촉촉한 피부를 가꿔주는 딥 클렌저. 230ml 4만2천원. 문의 02-3497-9533

Cleansing Milk & Cream

(왼쪽부터) **달바 7:33 백루테인 클린 밍** 흑미와 우유 영양 성분이 피부 보습력을 높여주고, 노폐물과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딥 클렌징 밍. 50ml 2만2천원. 문의 02-2017-3207 **시슬리 라슬레** 유·수분 밸런스 추출물이 피부 톤을 맑게 개선하고, 건조한 피부의 보습력을 강화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밀크. 250ml 12만원. 문의 080-549-0216 **오모르텔 비버탈 클렌징 밍** 향기린 온천수와 스위트 이모르텔, 삼구 씨 오일, 스킨라틴, 토코페롤이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세정해주는 미네랄 클렌징 밍. 50ml 13만5천원. 문의 02-3443-5940 **시세이도 엑스트라 리치 클렌징 밍** 필수적인 피부 수분은 보호하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산화된 피지는 자극 없이 제거해주는 약산성 클렌저. 125ml 5만원. 문의 080-564-7700 *객원 에디터 박정실*



editor's Pick

보기만 해도 설레는 눈부시고 화려한 패키지. 시각은 물론 후각과 촉각까지 만족시켜줄 매력적인 홀리데이 에디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티몰레타 디 체라 파우치에트** 피렌체 안뜰에서 피아네는 잎을 넣어 수증기로 재처리한 엑스 태블릿 27가지 향 상자에 들어 있다. 하루는 차예, 하루는 샤워 부스에 걸아놓았는데, 향이 너무 좋아 아침 자재으로 의미 없이 만년전 공간이 특별했다. 장미, 릴락스, 라벤더, 포푸리, 멜로그노노 향 등 총 다섯 종류. 2pcs 3만1천8백원. 문의 02-546-1612 *_by 에디터 정리윤*

샤샤미 립 크리스탈 루츠 향은 브라운 계열이었는데, 입술에 버니 골드 컬러 달린 차예는 링크 브라운 컬러. 한티드로 묘한 생생함이 느껴졌다. 크리미한 질감이 살짝 거머쥐어 지속력도 뛰어나고 강한 광이 부담스럽지 않다. 데일리 립 컬러로도 충분하다. 4g 7만2천원. 문의 02-517-0902 *_by 에디터 정리윤*

딤티크 2019 홀리데이 럭키 컴플렉션 190g 캔들용 가루셀 재미있는 기괴의 원리를 이용한 마술 같은 장식용. 촛불을 켜면 경쾌하게 회전하는 권형 금속 핀에 다섯 가지 향료의 마스코트를 장식했다. 딤티크의 190g 캔들 사이즈에 딱 맞게 끼워준다. 감각한 밤에 촛불을 켜고 소중한 사람들과 오도순도 대화를 나눌 때 사 용하면 분위기가 있을 듯. 8만5천원 50시간 태울 수 있는 190g 캔들 8만2천 원. 문의 02-3479-6049 *_by 에디터 정리윤*

누베아스 트라티 로즈 골드 한정으로 선보이는 로즈 골드 버전으로, 사용법은 간단하다. 고인 부위에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제품을 대고 5초가 지나 배 소리 가 난후 천천히 가볍게 밀듯이 올려주면 끝. 마사지 효과가 있어 사용 후 개운하고 자만감을 자극해서인지 활력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49만8천원. 문의 1899-0108 *_by 에디터 이수이*

시세이도 홀리데이 레드 다센스 세럼 그래픽 디자이너 히타치 에.비와 협업해 선 보인 패키지가 돋보인다. 바르자마자 피부결이 매끄럽게 정돈되고, 끈적임은 없 는데 피부를 고정한 듯 즉각적으로 윤기가 공급되는 느낌이다. 오래 지속되는 수 분감 덕분에 건조한 날씨에도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 75ml 16 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수이*

메이도업퍼아이스 트리트먼트 립 샷 #401 스투퍼미인 레드 입술에 코팅한 듯 달라 붙어 오랫동안 상쾌한 메이크업을 유지해준다. 알코올과 라벤더 향이 들어 있어 풀 립 메이크업은 물론 청교한 그래픽 디자인 표현도 가능하다. 발색력도 우수한 편. 2g 3만1천원. 문의 080-514-8942 *_by 에디터 이수이*

나스 프리 리치 치크 팔레트 뉴욕의 전설적인 클렌 스투디오 54에서 영감을 받 은 쪽이 패키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나스의 통통 푸는 아이코닉 립 컬러와 우아 한 골드 톤으로 팔레트를 구성해 이 제품 하나면 화려한 파티 메이크업이 완성된 다.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잘라붙어 레이어링할 수 있는 것도 장점. 3.9g X 6 7만9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수이*

랑콤 레네르지 멀티-리프트 울트라 밀크 우윳빛 에센스 토너. 필링 워터. 보습 밀크를 한 병에 담아 각각 케어는 물론 피부 톤을 밝히는 데도 두 마리 새끼를 발품 한다. 사용 전 토너를 충분히 흔든 뒤 화장실에 덜어 얼굴을 가볍게 두어피부를 일 주일, 미세한 변화지만 인색이 알아지고 피부결이 정돈된 느낌이다. 150ml 8만6 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수이*

프레쉬 홀리데이 기프트 세트 립 보습 제품 중 가장 애용하는 프래쉬 슈가 립밤 2 종과 립 트리트먼트 젤로 구성된 홀리데이 기프트 세트.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발 색, 극강의 보습력을 자랑하는 슈가 코랄 립 트리트먼트는 2.2g, 가벼운 텍스처 가 매력적인 슈가 립 워터 드롭 어드밴스드 테라피는 5ml의 미니 사이즈로 담았 다. 6만원.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이수이*

에스티 로더 뷰티풀 뱀 홀리데이 에디션 마치 부케 한 다발을 안은 듯 산산한 백합 과 향긋한 라일락 향이 풍부하게 느껴진다. 물론 타입이라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 에 살짝 터치해주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향을 맡을 수 있고, 피부에도 꼭 들어 가 유쾌하기 편하다. 6ml 3만5천원.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이수이*

카엘 울트라 하이샷 크림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설명이 필요 없는 수분 크림. 온 기온이 함께 쓸 수 있어 에디터가 출장이나 여행 시 맨세에서 구입해 2~3개 씩 챙겨놓는 제품이다. 홀리데이를 맞아 헬싱키 출신의 알코올 프리 야네 레 헬라 장라베리산책 출시한 패키지가 감동적이다. 선물용으로 제격. 50ml 4만 원 대. 문의 080-822-3322 *_by 에디터 정리윤*

구찌 풀름 알브로사리아 디 피오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어울리는 버건디 컬러의 보 틀이 매력적인 향수. 기존에 선보인 재스민 버드 추출물, 투베르조, 랑군 크리 드, 세 가지 노트에 오리스, 다마스코스 로즈 향기를 더해 한층 풍성하고 우아한 향 을 느낄 수 있다. 100ml 20만1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이수이*

클레르노 보메 리아닝 프레스드 파우더 리미티드 #101 블루밍 체리 메이크업 마 무리를 책임지는 알부미네이션 파우더. 두께 1cm, 무게 86g에 불과한 작고 가 벼운 패키지가 뛰어난 휴대성을 보장할 듯. 극도로 부드럽고 얇은 내장 스펀지를 사용해 살짝 피 버니 화상하고 투명한 피부가 완성됐다. 5g 11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수이*



DIOR PRESTIGE

라 마이크로 월드 로즈



10,000여 개의 로즈 마이크로 펄*이 선사하는
로즈 드 그랑빌의 강력한 스킨케어 솔루션

ROSE.LAB** 디올 프레스티지, 로즈 엑스퍼트

수입판매원 : 웹브이엔에이치 코스메틱스(주) / (080)342-9500 www.dior.com * 30m 한 방에 함유된 로즈 마이크로 펄 ** 로즈 연구실